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Grammaticalization and
Degrammaticalization of Internet Language in Korea and
China

2013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 부 리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비교 연구

지도교수 강 희 숙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 부 리

장부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강옥미 (인)</u>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이금순 (인)</u>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강희숙 (인)</u>

2012 년 11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5
1.3. 연구 내용 및 방법	16
II. 이론적 배경	18
2.1. 통신 언어의 개념 및 동기	18
2.1.1. 통신 언어의 개념	18
2.1.2. 통신 언어의 동기	19
2.2.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개념 및 기제	21
2.2.1.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개념	21
2.2.2.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기제	25
2.2.3.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기제 및 통신 언어의 동기	28
III. 한국어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31
3.1. 한국어 통신 언어의 문법화	31
3.1.1. 명사>부사	32
3.1.2. 명사>접미사	41

3.2. 한국어 통신 언어의 역문법화	45
3.2.1. 접두사>부사	46
3.2.2. 접미사>대명사	50
3.3. 정리	52

IV. 중국어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4.1. 중국어 통신 언어의 문법화	53
4.1.1. 형용사>접두사	53
4.1.2. 개사>접두사	55
4.1.3. 명사>접미사	57
4.1.4. 동사>접미사	74
4.2. 중국어 통신 언어의 역문법화	77
4.2.1. 접미사>명사	77
4.2.2. 형용사>대명사	79
4.3. 정리	81

V.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비교

5.1. 공통점	84
5.2. 차이점	86
5.3. 정리	88

VI. 결론 90

참고문헌 94

표목차

<표 1> 통신 언어의 발생 동기	20
<표 2> 문법화의 단계별 기제	26
<표 3> 한국어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52
<표 4> 중국어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81
<표 5>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사례	83
<표 6>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비교	88

그림목차

[그림 1] 형태소의 문법 의미와 어휘 의미의 상관관계	24
--------------------------------------	----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Grammaticalization and Degrammaticalization of Internet Language in Korea and China

Zhang Fuli

Advisor : Prof. Kang HuiSuk,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observe the phenomena of grammaticalization and degrammaticalization occurring both in Korean and Chinese Internet language and fi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So far, the results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ly, in chapter I, through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I concluded that many studies are doing a duplicated work, focusing mainly on the patterns and examples of Internet language with little innovation. But, in Korea there is only one new paper of Gang Hui-suk(2012) examining the degrammaticalization of 'gae-', meanwhile, in China there are several papers focusing on the grammaticalization and degrammaticalization. Therefore, the comparative study on grammaticalization and degrammaticalization of internet language is essential and meaningful.

Secondly, in chapter II, based on the former studies, the routes of grammaticalization and degrammaticaliz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Route of grammaticalization:

major category(noun, verb)>middle category(adjective, adverb)>minor category(preposition, affix, conjunction, article, auxiliary verb)>clitic>inflectionalaffix

Route of degrammaticalization:

inflectionalaffix>clitic>minor category(preposition, affix, conjunction, article, auxiliary verb)>middle category(adjective, adverb)>major category(noun, verb)

Thirdly, after specifically examining the examples in chapter III and IV, I compared the phenomenon and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s in chapter V.

Similarities:

- 1) In terms of grammaticalization, the same route represented as 'noun>suffix' was found both in Chinese and Korean Internet Languages.
- 2) The amount of grammaticalization is more than that of degrammaticalization.
- 3) Most of the grammaticalized quasi-affixes by the routes of 'noun>suffix' and 'verb>suffix' indicate people with certain characteristics.
- 4) Among the quasi-affixes 'ppa(빠), deoku(덕후), neunim(느님), tongnyeong(통령), dì(帝), kòng(控)', there are some quasi-affixes with similar meaning.
- 5) The forms originating from Japanese are found both in Chinese and Korean Internet languages.
- 6) Quasi-affixes like 'ppa(빠), neunim(느님), mén(門), gē(哥), jǐe(姐), dì(帝)' are originally from the hot social issues and spread widely.

Difference:

- 1) In terms of the original category of grammaticalization, Korean Internet language only begins from 'noun', but the Chinese Internet language

ranges from 'adjective', 'verb', to 'preposition'.

- 2) For Korean, the routes like 'noun>adverb' and 'prefix>adverb' heading to the adverb, are more than that of Chinese.
- 3) In Chinese, 'mén' experienced both grammaticalization and degrammaticalization. The process is special and it is the only one.
- 4) Among the quasi-affixes, 'gē, jǐe, shū, sǎo' are us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of family members.
- 5) For the original forms originating from foreign language, the Korean 'deoku(덕후)' was translated by the implicit method, while the Chinese 'mén', 'kòng' were translated not only by the implicit but also the paraphrasing methods.

Based on the summaries above, we can deduce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new words to appear in Internet language.

First, A lot of 'X(root)+A(quasi-affix)' structures will appear in Internet language. 'A', as a derivational quasi-affix, means the characteristic of an action, phenomenon, or a hot issue. And this structure is mainly used to indicate people.

Second, many adverbs composed of the structure 'Sino Korean+hi(-히)/jeogeuro(-적으로)' will grammaticalize into independent adverbs, with the 'hi/jeogeuro' eliminated.

Third, the grammaticalization of loanword will continue to appear.

Four, owe to the fast spreading, and participating of large numbers of netizens, Internet environment accelerates the grammaticalization and degrammaticalization of Internet Language.

Key words:

Chinese Internet Language; Korean Internet Language; Grammaticalization; Degrammaticalization; Comparative study; Similarity; Difference; Route

I.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언어변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언어를 전달하는 매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컴퓨터를 비롯한 통신 수단으로 구성된 인터넷망에서 통용되는 통신 언어의 출현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컴퓨터 통신이 발달하면서 새로 생겨난 통신 언어는 기존의 문어나 구어와 다른 표현 형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이루어진 많은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인터넷 사용자들이 빠른 소통을 위하여 단어를 축약하거나, 생략하기도 하며,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 귀찮은 경우에 부호와 숫자 등을 조합해서 얼굴 모양과 비슷한 표정을 만들어 쓰기도 한다¹⁾. 뿐만 아니라 개성을 선호하는 시대에 젊은 네티즌들이 해당 집단만 이해할 수 있는 은어나 ‘외계어’를 창조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통신 언어는 기존의 언어 체계와는 사뭇 다른 나름대로의 음운론적, 어휘론적,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사회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ㄱ. 할말이 많을끼 같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냐?..
- 나. 구냥친구랑술먹다점방와서글을쓴다
- 다. 방학동안은 빡시게 경부짤 하렵니다..
- 르. 맛있는거 좀 사다주세요용...
- ㄱ. 저는 강 열받아서 사자님 패버렸어.
- 비. 오늘은 공지가 죄에끔 길었네여...
- ㅅ. 오늘 수업땀에 못가유, ㅠ·ㅠ
- ㅇ. 여러분 모두 즐팅하세요
- ㅈ. 글구..인터넷으루..복습

1) 사이버 공간에서 컴퓨터 자판의 문자·기호·숫자 등을 조합해 감정이나 의사를 나타내는 표현법을 이모티콘(emoticon)이라고 한다.

- 츠. 나의 창창한 앞길을 가로막는 구나 니가
 크. 저도 잠수 아닌 잠수를 땀지만...너무 때문하더라구요..
 트. 스팸방지 필터작성 요령을 참고하세요~스팸메일! 너 딱~걸렸어!!(이정복 2003:105, 109)

- (2) ㄱ. 53550 (我想吻你)
 ㄴ. BD, NTMDGWG(笨蛋, 你他媽的給我滾)
 ㄷ. 你真是個天才
 ㄹ. 他男朋友眞男人
 ㄷ. 想知道的話, , , 你就人人一下
 ㅂ. 想潛水, 給個理由先^^
 ㅅ. 不過還是支持一下下~~快寫---寫寫寫

(1)은 ‘음운·표기’, ‘형태·통사’, ‘어휘’ 등 면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통신 언어의 예이다. (1ㄱ~ㅅ)는 ‘음운·표기’에 속하는 것이며, (1ㄱ)은 일상어 입말에서 실현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1ㄴ)은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16음절, 8어절의 문장을 붙여서 표기한 예이다. (1ㄷ)에서는 ‘오’가 ‘어’로 바뀜으로써 ‘공부 좀’이 ‘경부째’으로 바뀌는 모음 바꾸기가 일어났다. (1ㄹ)은 모음 다음에 자음 ‘ㅇ’이 덧붙여 있는 예이다. (1ㄷ)에서는 ‘그냥’을 ‘강’으로 적음으로써 음절수를 줄이고 있다. (1ㅂ)의 ‘찌에꿈’은 ‘조금’을 3음절로 늘인 것이다. (1ㅅ)의 ‘ㅠ·ㅠ’는 우는 모습을 글쇠판의 기호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것이다. (1ㅇ~ㅈ)는 ‘형태·통사’에 속하는 것이고, (1ㅇ)의 ‘즐팅’은 ‘즐겁게 채팅하세요’에서 첫 어절의 ‘즐’과 둘째 어절의 ‘팅’을 모아 줄임말로 만들어 쓴 것이다. (1ㅈ)는 서술어 일부가 줄어든 것으로 어근 성분만 남아 있다. ‘복습’은 ‘복습하다’에서 어근만 남고 접사가 떨어져 나간 예이다. (1ㅈ)은 일상어에서 자유로운 어순이라 부르는 현상으로 문장이 일단 종결된 뒤에 빠진 성분을 덧붙였다.(1ㅋ,ㅌ)는 ‘어휘’에 속하는 예이다. (1ㅋ)의 ‘잠수’는 원래 ‘물속으로 들어감’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대화방에 접속한 상태에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미 한국어사전에 있는 낱말이지만 그 뜻을 다르게 정의하여 의미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일종의 새말처럼 만들어 내었다. (1ㅌ)의

‘스팸메일’은 컴퓨터나 통신 관련 기술자들이 쓰던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일반 통신 이용자들이 널리 쓰고 있다. 이것은 전문어가 일반 화자들에 의하여 확산된 것이다.

(2)는 중국어 통신 언어 음운, 어휘, 통사적 특징이 드러나는 예이다. (2ㄱ)은 직접 말하기 민망한 말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다. ‘53550’은 ‘내가 너를 키스하고 싶다’는 말이다. (2ㄴ)은 한자의 한어병음의 첫 자모만 따서 붙여 적는 예이다. ‘笨蛋, 你他媽的給我滾’은 ‘바보, 씨발 꺼져’ 의미를 나타내는 욕설인데, 직접 말하기 힘들 때 각 한자의 한어병음의 첫 자모만 따서 붙여 적은 것이다. (2ㄷ)에 ‘天才’은 원래 천재라는 말인데, 오늘날에는 ‘타고난 멍청한 사람’을 가리킨다. (2ㄹ)은 ‘眞+명사’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 명사가 품사가 바뀌어서 형용사로 쓰인다. (2ㅁ)에서 명사 ‘人人’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人人網’의 약어인데, 여기서 동사로 쓰임으로 써 그 사이트에 로그인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ㅂ)은 부사 ‘先’이 동사 앞에 아닌 문장의 맨 끝에 붙어서 쓰는 예이다. (2ㅅ)은 ‘一下’가 거듭 적어 ‘一下下’가 되는데 더 귀엽고 친근감을 주는 표현의 예이다.

오늘날에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 따르면, (1)과 같은 예들은 각각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붙여 적기’, ‘음소 바꾸기’, ‘음소 더하기’, ‘음절 줄이기’, ‘음절 늘이기’, ‘기호를 이용한 적기’, ‘낱말 만들기’, ‘문장 줄이기’, ‘어순 바꾸기’, ‘전문어의 확산’ 현상 등으로, (2)와 같은 예들은 각각 ‘숫자 해음²⁾’, ‘한어병음 약자’, ‘새 의미를 부여함’, ‘품사 전환’, ‘부사 후치’, ‘단어 중복’ 현상 등으로 볼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 언어 가운데는 단순히 기존의 언어 형식을 변

2) 해음(諧音)은 사전에 의하면

- ㄱ. 음률을 맞추다(諧協音律),
- ㄴ. 어울리는 소리(諧和的音),
- ㄷ. 글자나 낱말의 음운이 서로 같거나 비슷함(字詞的聲韻相同或相近),
- ㄹ. 음성학 명사(聲學名詞),

등으로 풀이된다. 해음이란 좁은 의미로 말하자면 A와B 두 글자가 서로 다르지만 같거나 유사한 발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A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B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다(한명숙 2008:4).

형식키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인 언어 변화의 원리로서 설명이 가능한 현상도 있다. 먼저 그 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 ㄱ. 개가 우리 동아리 **짱**이잖아.
 ㄴ. 좋아요, 좋아요, **짱** 좋아요.
 욕을 쓰면 진짜 완전 울트리킵송 **짱** 나빠요.
- (4) ㄱ. **개**명이새끼, **개**무시, **개**바보, **개**병신, **개**병신새끼
 ㄴ. **개**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염없이 고맙다. <네이버 카페>
 그 아이 표정도 **개** 씨었다. <네이버 블로그>
- (5) **微**博客, **微**電影, **微**小說, **微**創新, **微**觀察.
- (6) ㄱ. 艷照**門**(사진 노출 사건)
 ㄴ. 打開艷照**門**看清里面的真相(‘사진 노출 사건’의 문을 열어서 진상을 알아본다).

위의 예들 가운데 (3), (4)는 강희숙(2012:74, 81)에서 제시된 예들로서 (3ㄱ)은 ‘짱’이 명사로 쓰인 예이고, (3ㄴ)은 ‘짱’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 예이다. (4ㄱ)은 ‘개’가 접두사로 쓰인 예이고, (4ㄴ)은 ‘개’가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 예이다. (5), (6)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통신 언어의 예로, 밑줄 친 한자들의 경우, 원래의 의미나 용법과는 다른 문법적 기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 (4)의 예들은 언어 변화의 보편적 원리에 해당하는 문법화 또는 비문법화로 설명할 수 있는 예들이라는 점에서 (1), (2)의 예들과 구별되는 것들이다(강희숙 2012:74, 79). (5), (6)의 예들 또한 문법화와 역문법화를 보여주는 예들로서, (5)는 자립 형식이었던 ‘微’가 ‘준접미사³⁾’로 사용되는 문법화의 예이고, (6)은 준접미사인 ‘門’이 일반명사의 역할을 하는 역문법화의 예이다. 이러한 예들 외에도 ‘哥’,

3) 준접미사는 접미사와 유사한 문법적 기능하긴 하지만, 전형적인 접미사로 볼 수 없는 구성을 말한다. 중국어에서 ‘類詞綴(류사철)’이라고 부른다. 한국어에 있어 ‘준접사’라고 부른다. 呂淑湘(1978)에서 ‘類詞綴’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중국어에 있어서 전형적 접사가 별로 많지 않으되 더러 문법소는 접두사나 접미사로 여길 수 있지만 접사만큼 되지 못한다. ‘類詞綴’은 ‘類前詞綴’과 ‘類後綴’을 포함한다.

‘姐’, ‘奴’, ‘帝’, ‘族’ 등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경로를 밝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중 통신언어 가운데 문법화와 역문법화라는 보편적 언어변화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예들을 비교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찰·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개별언어에 따라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일 수도 있는 통신언어가 사실은 보편적 언어변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선행 연구

한중 두 나라에서 이루어진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연구 배경 및 분석 방법을 기준으로 ‘일반 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적 연구’, ‘대조 연구’, ‘문법화와 역문법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네 가지 면에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중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일반 언어학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 연구로는 이정민(1994), 이정복(2000가), 박동근(2001), 조상진(2006), 于根元(2001), 劉欽明(2002), 鄭遠漢(2002), 張云輝(2007) 등이 있다.

이정민(1994)는 한국에서 언어학자가 규범적인 시각에서 통신 언어에 접근한 거의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화방 글, 격식과 경어법의 문제, 영향 관계 면에서 통신 언어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먼저 일상어의 규범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발음되는 대로 적기, 축약된 형태로 적기, 생략의 애용, 명사형 어미로 맺음, 말투대로 쓰기’를 통신 언어의 세부적 특징으로 들었다. 청소년들이 “맞춤법과 문어의 틀에서 벗어나 말투대로 생생하고도 자유분방하게 또 경제적으로 글을 쓰면서 파격의 재미를 본다.”고 해석하였다.

이정복(2000가)에서는 통신 언어의 실상을 세부적인 통신 언어 영역별로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통신 언어를 통신 운영자 언어, 통신 게시판 언어, 통신 대화방 언어, 휴대전화 글자 언어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음운·문법·어휘적 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통신 언어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박동근(2001)은 통신 언어의 유형을 ‘글(표기)’에 관한 것과 ‘말’에 관한 것으로 구별하고 통신 언어의 개념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에서 정의한 후, 통신 언어의 유형과 기능을 ‘표기상으로만 달라지는 경우’, ‘말이 달라지는 경우’, ‘언어 운용에 따른 기능’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소리 나는 대로 적기’나 ‘현실 발음의 반영’, ‘다르게 적기’가 ‘표기상으로만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음운·형태 변이, 새말, 의미 전이, 통사 변이’가 ‘말이 달라지는 경우’라 하였다. 또 ‘언어 운용상의 기능’에는 ‘의성/의태어의 사용’, ‘감정문자(emoticon)의 사용’이 해당된다고 기술하였다.

조상진(2006)에서는 각종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서 쓰이고 있는 내용을 수집하여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통신 언어의 특징이 나타나는 어휘들을 추출하여 음운적, 어휘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통신 언어의 발생 원인과 특징을 본 다음 음운적 분석에 있어서는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생략, 축약, 탈락, 첨가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어휘상의 분석에 있어서는 의성어·의태어, 은어, 약어, 비속어, 이모티콘 등으로 나누어서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통신 언어의 올바른 사용 방안을 ‘사회 교육을 통한 방안’, ‘학교 교육을 통한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于根元(2001)에서는 통신 언어의 분류 및 특징을 다루었다. 광의의 관점에서 통신 언어를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순수한 의역이며, 둘째는 음역과 의역을 겸하는 것이며, 셋째는 순수한 음역이며, 넷째는 첫 글자 축약이며, 다섯째는 한자 해음, 숫자 해음과 혼합 해음이 포함되는 해음이다. 통신 언어의 특징은 ‘외래어 단어 많음’, ‘술어 많음’, ‘부호와 글자 섞임’, ‘문자의 직관화’, ‘유머감이 많음’ 등이 있다고 하였다.

劉欽明(2002)에서는 통신 언어 어휘를 형태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한어 병음과 외래어 자모와 숫자와 이모티콘으로 구성된 비한자 글자의 어휘이다. 둘째는 ‘자모와 숫자의 혼합’, ‘자모와 기호의 혼합’, ‘자모와 숫자와 한자의 혼합’ 등 세 가지가 포함된 혼합 글자 어휘이다. 셋째는 해음과 합성과 모방 비유 등을 포함한 한자 글자 어휘이다.

鄭遠漢(2002)에서는 의미 유래를 기준으로 삼아 통신 언어를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부호 조형류이다. 부호와 숫자와 자모 등을 조합하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 특정한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부호조형(符號造型), 부호+숫자 조형, 부호+자모 조형 등을 포함한다. 둘째는 숫자 해음류이다. 셋째는 해음 대체류이다. 넷째는 생략과 축약인 약칭류이며 영어축약, 한어병음 축약 등을 포함한다. 다섯째는 전의와 품사 바꿈류이며 의미 전이, 품사 전환 등을 포함한다. 여섯째는 쌍어(雙語) 혼잡류이며 일곱째는 글자 중복류이다.

張云輝(2007)에서 통신 언어의 어휘 및 문법 특징을 연구하였다. 분류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연구와 달리 통신 언어를 크게 외래어의 통신 언어 어휘와 한자 통신 언어 어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영어의 예를 또 다시 다섯 가지 소 범주를 나누었다. 영어 어휘 원형, 영어의 음역 단어, 영어의 음역 차용 단어, 영어의 축약어, 영어 차용의 해음어 등을 제시하였다. 한자 통신 언어 어휘의 경우에 방언의 어휘, 한자 해음, 축약어, 의미 변형, 숫자 해음, 석자(析字), 어휘의 합음 변화, 어휘 의미 변화, 의성어, 아동 언어 등 열 가지 소범주로 나누었다.

통신 언어를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성과로는 임규홍(2000), 이정복(2000가), 백경녀(2001), 이정복(2002가), 이정복(2011라), 練欣(2012), 田聰(2012) 등이 있다.

임규홍(2000)은 설문 조사를 통하여 중·고등학생들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분석한 다음 통신 언어의 ‘일반적 특성’과 ‘언어적 특성’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담화 주체의 다양성’, ‘담화 참여의 평등성’, ‘담화자의 개인성’, ‘담화자의 익명성’, ‘정보 전달의 편이성’, ‘정보 전달의 속도성’, ‘정보 표현의 탈규범성’, ‘매체의 간접성’, ‘언어 표현의 구어성’, ‘언어 표현의 상징성’, ‘대화자의 비기억성’ 등 11가지를 들었다. 언어학적 특징은 다른 연구들과 비슷하게 음운론적,

형태론적, 어휘론적 특성들을 제시하였다.

이정복(2000가)에서는 통신 공간에서 지역 방언이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 지역 방언이 많이 쓰이는 맥락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통계적 방법과 사례 분석 방법을 함께 동원하여 자료를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이 글에서 통신 언어의 음운, 문법, 어휘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방언형이 쓰임을 확인하는 전체하에 컴퓨터 통신 동호회 게시판에서 어느 정도 방언형이 쓰이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지역 기반 동호회는 물론이고 전국 단위의 동호회에서 동남 방언과 서남 방언이 특히 활발히 쓰임을 통계적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백경녀(2001)에서는 청소년들의 언어의 특징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현상, 외래어나 외국어를 남용하는 현상,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현상 등을 살피면서, 이러한 일상 언어의 사용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실제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는 거의 통신 언어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복(2002가)는 통신 언어 가운데서 전자편지 언어 영역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편지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고 화자의 세대에 따른 언어 사용 차이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20대와 30대 이상의 화자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1000여 통의 전자편지를 기본 자료로 이용하면서 그 가운데 두 세대 집단별 각 100통을 따로 뽑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을 통하여 전자편지가 일반편지와 달리 다양한 용법 변이가 있고 그것은 세대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드러냈다. 전자편지의 기능은 대체로 ‘안부 묻기, 마음 나타내기, 정보 전하기, 자료/행위 구하기, 즐거움 나누기’ 등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0대 화자들은 ‘안부 묻기’, 30대 이상 화자들은 ‘정보 전하기’의 기능으로 전자편지를 가장 많이 활용함을 보았다.

이정복(2011라)에서는 한국어 인터넷 공간, 특히 사회적 소통망(SNS)에서 쓰이는 통신 언어의 사용 실태와 세대 간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트위터에서 수집한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통신 언어 쓰임 실태를 분석하고, 통신 언어의 세대 차이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기술한 후 세대 간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을 누리꾼들의 설문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신 언

어가 모든 세대에서 쓰거나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세대 간에 질적 차이가 없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세대 간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더 중요한 요인은 ‘소통 태도’, 욕설 등의 ‘부정적 표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언어는 세대 간 소통의 방해물이기보다는 다른 세대의 화자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기 위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매개물임을 강조하였다.

練欣(2012)에서는 중국 서남 쪽 여러 민족이 섞여있는 ‘百色(백색)’ 지역의 통신 언어 가운데 표준어와 사투리의 사용 현황을 연구하였다. 그 지역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에 출현한 댓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동기로 인해 사투리 중의 표현력이 강한 어휘를 사용하는 현상이 많다. 셋째로, 여러 사투리와 표준어 혼합되는 현상이 있다. 어느 한 가지 사투리가 발음만 있고 대응하는 한자가 없는 경우에 표준어로 표기하는 현상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는 통신 언어에서 사투리가 사용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지역 언어문화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田聰(2012)에서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통신 언어 사용 양상을 연구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통신 언어를 사용 현황에 대한 연구결과는 64%가 넘는 학생이 인터넷에서 채팅할 때 통신 언어를 쓴 것으로 보였다. 또한 통신 언어의 창조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개성을 추구하고 비밀을 지키는 데에 많이 쓴다고 하였다. 제보자 중에 85%가 통신 언어에 대하여 규범화시킬 수 있는 데에 찬성하지만 완전히 제한하는 데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통신 언어의 사용도 청소년들이 표준어 습득과 작문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규범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통신 언어를 규범화시키기 위하여 통신언어 중에 사회와 민족문화에 유익하고 생명력이 있는 부분을 유지하되 폭력적인 어휘들을 제한해야 된다고 제안하였다.

한중 통신 언어에 대한 비교 또한 대조 연구로서는 SONG DAPING(2009), 강미연(2010), 판디(2011), 양호연(2012), 陸欣(2006), 陳治國(2007), 崔靛席(2008), 占素萍(2011) 등이 있다.

SONG DAPING(2009)는 ‘한중 인터넷 통신 언어 문화의 비교 연구’를 주제로 삼

아 한중 통신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한중 통신 언어 공통적 특징은 ‘약어와 단어 의미 변형, 합성법, 생략법, 영어차용 및 생략법, 기호사용’ 등을 들었다. 차별적 특징은, 한편으로 중국어 통신 언어가 ‘영어 해음, 중국어 해음, 방언 해음, 숫자 해음’ 등 다양한 해음 현상이 있다고 하고, 한편으로 한국어 통신 언어가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자모음 대치, 형태 변이’ 등 한국어 음운적 특징에 의한 통신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강미연(2010)에서는 통신 언어의 문법적 특징을 연구하는 데에 중국어는 ‘품사 전환’, ‘동사나 동사구+ing’, ‘부사어 후치’, ‘---的說’ 등을 제시하며, 한국어는 ‘불완전한 문장’, ‘문장 성분이 어울리지 않음’, ‘조사의 생략과 오용(誤用)’, ‘호칭과 경어의 오용’, ‘피동의 오용’, ‘어순 도치’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동사나 동사구+ing’, ‘부사어 후치(後置)’, ‘...的說’를 ‘새로운 종결어미’로 분류하기 보다는 ‘어기(語氣)조사’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판디(2011)에서는 한중 인터넷 통신 언어의 특징을 조어, 표기, 의미로 나누어서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았다. 중국어 통신 언어에 있어 한어 병음의 약어, 영어의 약어, 다음절의 간략화⁴⁾ 등 방법이 있다고 하였다. 표기에 있어서는 중국어 해음, 숫자 해음, 혼합 해음, 방언 해음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의미에 있어서는 의미 변형, 신조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 기호(이모티콘)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 유아어⁵⁾의 사용을 따로 한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대조하여 한국어 통신 언어의 조어에 있어서 축약과 생략, 약어, 첨가 등으로 나누었다. 표기에 있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숫자와 로마자의 사용으로 살펴보았다. 의미에 있어서 의미 변형, 신조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 기호(이모티콘) 등으로 나누었다. 이런 분류 외에 또한 방언의 사용, 유아어, ‘님’의 사용 등을 제시하였다.

양호연(2012)는 한중 통신 언어의 음운론적 특징을 비교한 연구로서 먼저 연구의 범위를 ‘일반 언어의 의미확장형 통신 언어’, ‘축약형 통신 언어’, ‘의미에 중점을 둔

4) 다음절의 간략화란 현대 중국어 다음절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인터넷에서 편리한 표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절 단어인 고대 중국어 형식으로 간략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판디 2011).

5) 어린 아이처럼 말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는요.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안녕, 멍멍곰’ 등 있다(판디 2011:40).

신조어’, ‘이모티콘’, ‘외계어’, ‘늘여 쓰기형 통신 언어’ 등이 제외된 음성 지향적인 통신 언어⁶⁾로 한정하였다. 이어서 통신 언어의 생성과 심리적 메커니즘의 관계를 살펴봤음으로써 경제적 동기로 의한 음운 현상과 표현적 동기로 의한 음운 현상을 나누어서 연구하였다.

陸欣(2006)은 학술지에 실린 짧은 논문으로서 통신 언어의 이모티콘 체계와 ‘숫자의 새 의미 부여’ 두 가지를 다루었다. 이모티콘에 대해 중국과 한국에서 서로 다른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측시(側視) 체계이고 한국에서는 정시(正視) 체계인 것을 알려주었다. ‘숫자에 새 의미 부여함’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지만 한국에서 비해음과 암호 용법을 통해서 숫자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글과 한자의 고유한 차이로 인한 표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합성법, 약어, 대체법 등으로 말미암아 통신 언어의 차이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陳治國(2007)에서는 중한 통신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음운·어휘·통사적 층위에서 살펴보고, 그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의 발생 원인을 언어학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어는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발음대로 적기, 자음과 모음 대치, 축약과 생략, 어말에 ‘口, 入, ㅂ, ㅎ, ㅛ’ 등의 첨가 현상이 있는 반면에 중국어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음 현상이 있다고 밝혔다. 어휘적 특징에 있어서 합성법, 축약법, 영어와 숫자 사용, 이모티콘 사용, 의성어와 의태어 사용 등과 같은 조어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양국 통신 언어는 경어법을 안 지키는 공통점이 있되 한국어는 ‘외계어 사용, 맞춤법 무시’ 등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崔靄席(2008)⁷⁾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중한 통신 언어 대조 연구 논문 중 유일한 박사 논문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통신 언어의 개념과 생성 원인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중한 통신 언어의 정태(靜態), 동태(動態) 언어 체계

6) 문자지향적인 통신 언어는 위와 같은 형식이 포함되며, 음성지향적인 통신 언어는 일반 언어에서 통신 언어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탈락·축소·교체·첨가와 같은 음운변화를 거친 통신 언어를 의미한다.

7) 이 논문이 崔靄席(2005) 석사 논문을 확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崔靄席(2008)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의 구성과 이모티콘 기호사용 체계를 연구하여, 각자의 특징을 기반을 두어 대조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로, 한중 양국에서 음역과 숫자 해음을 통해 신조어를 만들거니와 종류가 다르다. 둘째로, 축약하는 방식으로써 약어를 많이 만들거니와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어는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연음, 합성, 생략, 자음교체 등의 방법을 통해서 약어를 만드는데, 중국어는 영어축약, 한어병음축약, 또한 한자와 숫자, 영어, 병어의 결합, 등 방식으로 약어를 만든다. 셋째로, 옛 단어에 새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거니와 한국어에 비해 중국어 통신 언어에서 더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넷째로 한중 두 나라에서 모두 이모티콘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한국어 통신 언어의 이모티콘 체계는 중국어 이모티콘 체계보다 수량이 훨씬 많고, 표현 범위가 넓으며, 혼합되는 형식이 보다 복잡하다.

占素萍(2011)에서는 한중 통신 언어의 특성을 ‘음운적 표기, 어휘 형태 변화로 인한 인터넷 언어, 문법이 어긋리지 않는 인터넷 언어’ 세 가지 면에서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강조하기 위해서나 개성 있게 표현할 때 ‘분해(分解) 표현’을 사용하는데 한국어의 경우는 받침이 없는 어휘들이 일어나지만 중국어의 경우는 좌우형 글자에서 많이 생기고 상하형 글자에서 조금 나타났다고 하였다. 통신 언어에서 기호 사용에 있어 중국어 통신 언어 중 숫자의 사용은 형식이 다양하지만 한국 통신 언어에는 ‘숫자 기호 회의’와 ‘연상 표현’이 없다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어와 영어 단어를 개조하여 문자, 숫자, 자모 등을 임의로 연결하거나 함께 뒤섞어서 자모사⁸⁾의 일종이 형성된다.

일상 언어가 통신 언어로 발전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통신 언어를 문법화와 역문법화 이론으로 연구한 성과로서 한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강희숙(2012)를 들 수 있고,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는 李艷(2010), 趙雪·陳青海(2011), 張小會(2012), 張佳(2012), 尹睿·王瑩(2012), 宗守云(2012) 등을 들 수 있다.

강희숙(2012)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의 언어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접두사 ‘개

8) 자모사(字母詞):한 개의 음절을 자음과 모음으로 갈라서 적을 수 있는 낱낱의 글자, 한 문자의 음을 밝히는 글자이다. 즉, 절음, 중국의 음운학에서 자모 이외의 글자, 중국어 성모 23개 운모 24개, 라틴 자모(한어병음 포함) 혹은 그리스 자모로 구성된 단어, 혹은 한자, 기호, 숫자로 구성된 단어로 인터넷 통신 언어 체계 중 주요한 구성 부분이다(占素萍 2011:54).

-’를 단순한 통신언어의 문법적 기능 바꾸기 현상이란 관점에서 벗어나 역문법화 현상으로 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통신 언어 가운데 ‘완전, 대략, 장(長, 醬), 진심, 대박’ 등이 원래의 문법 범주인 명사에서 부사로 바뀌는 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초-, 왕-, -님’ 등의 소범주에 속하는 접사가 중간 범주에 속하는 관형사나 부사, 또는 대명사로 전환되는 현상을 역문법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李艷(2010)에서는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X奴’형 구조를 어휘화와 문법화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X奴’ 중에 ‘奴’가 예로부터 ‘비천한 죄인’ 또한 ‘노예’ 뜻으로 쓰였다가 ‘자기를 겸손하게 말하는 겸어’로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X奴’ 구조의 ‘X’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노예의 의미에서 주로 ‘어떤 목적이나 상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노예와 같다’는 의미로 범화되었다고 하였다. ‘奴’는 독립성 있는 명사에서 유(類)접사로 발전되며 이에 따라 ‘X奴’의 ‘奴’가 문법화를 거쳤다고 하였다.

趙雪·陳青海(2011)에서는 역시 의미, 구조, 기능 등 면에서 ‘被X’류 어휘를 분석함으로써 “被”가 이미 문법화를 거쳐서 유사접미사로 발전되었다고 하였다. ‘밈이론(memetics)⁹⁾’을 통하여 ‘被X’는 인터넷에서 전파되는 언어밈으로 봄으로써 ‘被X’의 전파 기제를 설명하였다. 통시와 공시적인 분석함으로써 ‘被X’ 중의 ‘被’가 실질 의미를 가지는 명사로 쓰이다가 ‘명사(이불)→동사(입히다)→조동사(피동)→유사접미사’의 변화 과정이 문법화 경사의 이론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張小會(2012)에서는 새로 나타난 통신언어인 ‘X+的說’의 문법화와 어휘화에 대하여 생성 원인과 과정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 성과에 따르면 ‘的’은 실사

9) 영국의 저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1976년에 펴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등장한 말로, 유전적 방법이 아닌 모방을 통해 습득되는 문화요소라는 뜻. 대표적인 예는 광고·노래·사상·패션·건축 양식 등이다. 밈에 기초해 파생되는 것이 ‘마인드 바이러스’로 인간의 마음속에 침투해 사고방식과 의지를 조종하거나 심지어 삶 자체를 파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여성들이 유행에 따라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어한다든가 CF를 보고 특정 상품을 구입하며, 정치집단의 선동에 현혹되는 것도 마인드 바이러스의 영향이다. 마인드 바이러스의 개념을 주창한 리처드 브로디는 정보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마인드 바이러스의 침투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70&docId=934935&mobile&categoryId=170>).

‘地, 底’에서 구조 조사인 ‘地, 底’를 거쳐서, 구조 조사 ‘的’, 어기(語氣)사 ‘的’까지 허사화되었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說’은 애초 독립적인 동사 ‘말하다’로 쓰였다가 부사와 결합되어 문장 연결사, 연결어미로 쓰이는 ‘說’¹⁰⁾이 형성되었다. ‘說’과 ‘的’은 의미 범화의 과정을 겪고 허사화되며, 어기사의 성격을 나타내게 되었기 때문에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결합한 후에도 어기사로 봐야 된다고 말하였다.

張佳(2012)에서는 통신 언어 중 ‘微X’류 어휘의 유형과 특징을 살피면서 의미, 구조, 기능 세 가지 면에서 연구하며 ‘微’가 실사에서 유사접사가 되는 허사화 과정을 겪었다고 하였다. ‘微’는 원래 중국어에서 독립어로 쓰이는 어기였는데 서양에서 중국으로 전한 자연과학, 전자제품을 비롯한 접두사 ‘micro-’를 시작하는 술어들을 번역할 때 처음으로 ‘微X’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¹¹⁾. ‘微X’ 구조에서 ‘微’가 ‘작다’의 의미항에서 벗어나 ‘짧은, 세련된’의 평가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항을 가지게 되었다. ‘微’는 ‘微X’ 구조에서 어근의 앞에다가만 배치되며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휘 의미는 완전히 허화되지 않고 여전히 ‘작다’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류(類)접미사로 보아야 된다고 하였다.

尹睿·王瑩(2012)에서는 인터넷에서 출현하여 일상어로 확대되는 통신언어 ‘X帝’의 구조와 의미 특징 및 생성 기제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우선 인터넷, 신문지와 ‘北京大學現代漢語語料庫(북경대학교 현대 한어 자료고)’에서 수록된 ‘X帝’형 구조들, 총 75개를 토대로 어근 ‘X’의 음절수, 형태소 단위, 품사별을 분류하였다. ‘X’ 자리에 들어가는 성분은 첫째, 쌍음절이 제일 많고, 둘째, 89%가 단어이고, 셋째, 형용사/동사/명사의 순으로 많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즉, ‘帝’가 언어 응용에 있어서 더욱 활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X帝’ 구조가 임시적인 구성에서 고정되는 어휘로, 즉 어휘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帝’가 유접미사로 여길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면에서 설명하였다.

(7) ㄱ. ‘X帝’형 구조에서 ‘帝’가 항상 ‘X’ 뒤에 있다.

10) 부사 성격은 ‘再說’, 문장 연결은 ‘比方說’, 연결어미는 ‘或者說’, 어기사는 ‘我說’ 등이 있다.

11) 예를 들어서 micro-computer=微机, micro-organism微生物, micro-electronic=微電子

- ㄴ. ‘帝’와 결합하여 생기는 새 단어가 많이 있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즉, ‘帝’의 조어 능력이 강하다.
- ㄷ. ‘X帝’ 구조에 ‘帝’가 ‘어떤 행위 혹은 기술이 남에게 놀래거나 관심을 받거나 부러워할 만큼 되었다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허화되었다.
- ㄹ. ‘X帝’ 구조의 품사 종류를 보면 다 명사이기 때문에 ‘帝’가 ‘X帝’ 구조를 조어할 때 유화작용(類化作用)을 하고 있다.

위의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帝’가 ‘어근→유접사→접사’라는 연속 변화 중에 있으며 따라서 유접사로 여길 수 있다고 하였다.

宗守云(2012)에서는 유접미사 ‘一族’의 역문법화 현상을 연구하였다. 일본어에서 유래된 ‘一族’은 앞에 어떤 성분을 붙여서 ‘X一族’ 구조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같은 사회 특징을 가지는 한 가지 사람을 표시하는 유접미사로 쓰이고 있지만 ‘一族’과 앞의 ‘X’가 긴밀하게 결합하는 관계에서 독립성을 획득하여 비교적 독립 형식으로 쓰이고 있다. 의미면에서 공통 사회 특징을 가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가 구체적 의미인 ‘사람’으로 변하였다. 그러므로 ‘一族’의 역문법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한중 두 나라에서 이루어진 통신 언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일반 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적 연구, 대조 연구, 문법화와 역문법화적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일반 언어학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 내용은 주로 형태, 음운, 의미 측면에서 통신 언어의 유형에 집중되고 있으며, 연구 결과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연구자가 정의한 통신 언어 유형에 통신 언어 분류 방식이 다양하지만, 연구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이 없는 것 같다. 대조 연구는 일반 언어학적 연구를 기반을 두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신 언어의 형태적인 새 유형이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연구 내용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통신 언어의 양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문체점을 확인하였다.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을 다룬 논문들 가운데 중국에서 이루어진 논문들은 주로 문법화의 하위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준접두사화와 준접미사화가 포함된 접사화 현상을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법화의 결과에 있어서 전형적 접사가 아닌 형태를 주로 준접사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의하

는 연구가 대다수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강희숙(2012)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 통신 언어 문법화와 역문법화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전개할 것이다.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과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한중 두 나라에서 이루어진 통신 언어 및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연구 성과를 정리한다.

II 장에서는 통신 언어의 개념 및 특징, 문법화와 역문법화 개념 및 원리 등을 다룸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문화와 역문법화의 개념 및 원리를 논의할 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언어학계의 견해들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특히 문법화와 역문법화 경로를 제시할 때 한국어와 중국어 간에 서로 적용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III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룬 통신 언어 말뭉치 자료와 인터넷에서 새로 생긴 통신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국 통신 언어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을 본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를 연구하는 데에 특히 언급해야 할 것은 접사와 관한 문제이다. 통신 언어에서 접사처럼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접사로 여길 수 없는 형태소가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형태소를 ‘준접사’로 보는 견해가 있고 접사로 처리하는 견해도 있는데 확정된 기준이 없다. 중국에서는 이런 문법소를 ‘유접사(類辭綴)’로 보는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법화와 역문법화론이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연구하는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문법소를 접사로 변하고 있는 형태로 간주하여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IV 장에서는 III 장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 통신 언어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을 분

석하기로 한다.

V장에서는 III장과 IV장에서 다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중 통신 언어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아울러 통신 언어의 생성 동기 및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원리로 통신 언어의 변화 현상을 설명하도록 한다. 한중 통신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기원적 요소, 결과, 전 과정 등에서 비교할 것이다. 그 외에 오늘날에까지 관찰된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예를 통하여 통신 언어가 문법화와 역문법화를 하는 경향을 예측하고 통신 언어의 새 어휘들이 생기는 현상에서 공통점을 찾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통신 언어의 개념 및 동기

2.1.1. 통신 언어의 개념

통신 언어란 말은 컴퓨터와 전자 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인 ‘컴퓨터 통신망’(PC networks)과 그것의 확대·결합 형식인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컴퓨터 통신 언어’ 또는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언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 통신이 인터넷에 통합되어 이용자가 거의 없어 존재 의의가 크게 약화하였기 때문에 ‘컴퓨터 통신 언어’보다 ‘인터넷 통신 언어’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이정복 2003:16~17).

통신 언어의 개념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于根元(2001)에서는 통신 언어란 처음에는 컴퓨터 언어를 가리켰지만 이제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는 자연언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의 통신 언어는 포럼과 채팅방의 특별한 언어를 말한다고 하였다. 鄭遠漢(2002)에서는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과 접속하여 쓰는 언어를 통신 언어라고 부르면 적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통신 언어란 한편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전문 용어를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교류하기 위하여 임시로 창조한 특수 부호나 용법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盧惠惠(2003)에서는 통신 언어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교류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응용 범위와 사용 인구가 제한되는 사회방언의 변이라고 하였다. 秦秀白(2003)에서는 통신 언어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매체 언어로서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전문용어, 인터넷 문화와 상관한 슬어와 인터넷 교류(BBS, 인터넷 채팅)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언어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 이 정의는 많은 중국 언어학자들에게 통신 언어 연구에서 인

용되었다.

그러나 통신 언어 정의에 대하여 더 감안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스마트폰 및 무선 인터넷(WIFI)이 출현하면서 컴퓨터를 비롯한 인간의 삶과 교류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컴퓨터와 전화가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움직이면서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기기 가운데서도 특히 스마트폰은 휴대성 면에서 큰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통신 언어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상황이다. 이제는 고정된 공간에 설치된 커다란 컴퓨터 앞이라는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수시로,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하듯이 일상어와 통신 언어의 경계도 허물어지며 서로 섞여 쓰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통신 언어에 대한 정의는 사용 매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로든 스마트폰으로든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은 전자 신호로 구성된 인터넷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통신 언어’보다 ‘인터넷 통신 언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통신 언어의 개념은 이정복(2003)에서 정의한 대로 인터넷 통신 언어(통신 언어/통신어)란 전자 통신에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글자 언어를 말한다. 통신 언어는 ‘인터넷 통신 언어’를 가리키고 편리상 약어 ‘통신 언어’로 기술하는 것이다.

2.1.2. 통신 언어의 동기

통신 언어의 특징은 언어가 생겨나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넓은 범위로 보면 컴퓨터와 인터넷의 기술과 문화의 발달이라는 환경이 있고, 좁은 범위로 보면 인터넷이 제공하는 가상공간이 있다. 그러한 가상공간에는 인터넷 게시판, 채팅방, 메신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신 화자들은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면서 왜 일상어와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쓰게 되었는가? 다음으로 통신 언어의 발생 동기를 살펴보기로 한다.¹²⁾

<표 1> 통신 언어의 발생 동기

구분	동기
1차적 동기 (통신 언어가 나타나는 데 중요한 역할)	경제적 동기
	표현적 동기
2차적 동기 (통신 언어 유형의 확대 및 보급에 중요한 역할)	오락적 동기
	유대 강화 동기
	심리적 해방 동기

통신 언어의 사용이 글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눌 때 직접 마주보고 대화를 나눌 때와 비교하면 대화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절차가 번잡스럽다. 또한 컴퓨터 통신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생각한 말을 글자로 바꾸어 컴퓨터 화면에 올림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읽어 뜻을 통하다 보니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이 줄어들 수 있고,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을 보기 어려우니 살아있는 대화로서의 생동감을 느끼기 어렵다. 따라서 글자 입력을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음절 줄이기, 붙여 적기 등의 음운·표기 현상과 문장 줄이기, 문장 성분 및 조사 줄이기, 짧은 부정문 사용 등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가지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려고 기호, 숫자를 동원하여 마치 초기의 상형 글자처럼 그림을 그려 시가적인 감각에 호소함으로써 느낌이나 상태를 생동감 있는 각종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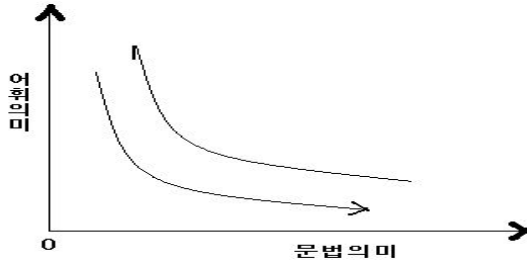
12) 통신 언어의 발생 동기는 이정복(2003:32-33)에서 참조.

통신 환경에서 활동하는 화자들이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라고 종결어미 ‘-요’를 ‘-여’로 바꾸는 것이나 ‘좋았어’를 ‘조아씨’로 적는 것 등과 같이 규범적인 본래의 형식을 바꾸어 봄으로써 재미를 느끼고자 하곤 한다. 또한 때를 지어 생활하는 사람의 본성으로 인해 통신 이용 상황에서 통신 화자들이 ‘왕따’가 될까봐 우려하니 같은 언어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동류(同類)라는 의식을 드러낸다. 이것은 유대 강화의 동기로 인한 것이다. 더 나아가 통신 공간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일종의 ‘해방구’로 받아들여졌다. 통신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억압적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의 틀에서 벗어나므로써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느끼기 위해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규범에 어긋나는 언어 형식을 사용하려고 한다. 특히 청소년 이용자들의 경우 처음에는 경제성이나 표현성의 동기와 비의도적 오타에 의해 규범과 다른 언어를 쓰게 되었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문제 삼게 되면서 반발 심리에서 그러한 형식을 더 열심히 채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에 의해 통신 언어의 사용이 강화되면서 비속어나 은어 등의 사용이 생기게 되었다.

2.2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개념 및 기제

2.2.1.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개념

주지하는 대로 최소의 문법 단위에 해당하는 형태소의 의미는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로 구분된다. 어휘적 의미를 지닌 것은 주로 자립적으로 쓰이는 어휘소(lexical word)이며,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주로 의존적으로 쓰이는 문법소(function word)이다. 문제는 어떤 형태소가 어휘적 의미를 지녔는지, 아니면 문법적 의미를 지녔는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 형태소가 지니는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의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강희숙 2012:63).



[그림 1] 형태소의 문법 의미와 어휘 의미의 상관관계

[그림 1]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어휘적 의미가 크면 문법적 의미가 그만큼 적고, 또 문법적 의미가 크면 어휘적 의미의 양과 질이 적어진다. 어휘적 의미를 가졌는지, 문법적 의미를 가졌는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도성’의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형태소가 지니는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의 이러한 상관관계에서 비롯된 언어 변화의 원리에서 문법화와 역문법화 이론이 비롯되었다(안주호 2001:96).

‘문법화’란 용어는 20세기 초의 문법화론 학자인 Meillet(1866-1936)에 의해 제시되고 정의되었다. Meillet는 문법화를 ‘완전한 자립적 단어에 문법적 특징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문법화라는 용어에서 일차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사류가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허사류로 바뀌는 언어 변화 현상이 문법화라는 것이다.¹³⁾ 그러나 문법화에 대한 정의와 연구 범위는 이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현대 문법화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법화론의 정의는 Kuryłowicz(1965:52)가 한 것이다. Kuryłowicz는 다음과 같이 문법화를 정의하였다(이성하 1998:23).

13) 이성하(1998)에서 이런 문장 예를 들었다. ‘나는 밥을 먹어버렸다.’ 이 문장에서 보듯이 ‘버리다’란 동사가 그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뜻을 잃어 버리고 완료된 행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시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즉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단어가 차츰 그 의미를 잃고 시제, 상, 양태, 서법과 같은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성분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 (8)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 (Grammaticalization consists in the increase of the range of a morpheme advancing from a lexical to a grammatical or from a less grammatical to a more grammatical status, or from a formant to an inflectional one.)

문법화에 대한 이와 같은 Kuryłowicz의 정의는 현대 문법화 이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문법화 이론은 결국 계속적으로 문법을 향해 가고 있는 어휘들의 행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이성하 1998:24). Kuryłowicz의 기여는 문법화가 단순히 어휘적인 언어형태가 문법적인 언어 형태로 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법성의 정도란 연속적인 것이므로 문법소가 덜 문법적인 것에서부터 점점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 역시 문법화에 포함 된다는 것을 지적한 데에 있다(심을식 2008:96).

이와는 달리 역문법화란 문법화의 연쇄 경로와는 반대 방향에서 이루어진 변화 현상이다. 따라서 역문법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9) 역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문법적 지위에서 어휘적 지위로, 더 문법적 지위에서 덜 문법적 지위로 변화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역문법화란 의존적으로 문법적 기능만을 전담하던 형태소가 자립적으로 쓰이고 어휘 의미를 획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표현적으로만 보면 ‘어휘화’와 동일한 개념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어휘화를 문법화의 반대현상, 즉 역문법화 현상으로 간주하는 이도 있다(안주호 2001:93). 그러나 어휘화는 문법적인 형태가 자립성을 획득하여 어휘부에 들어가는 형태로 되는 과정이고, 역문법화는 문법적인 형태가 어휘적인 지위로 발전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어휘적인 형태가 아닌 덜 문법적 지위에 있는 형태도 포함된다.

앞에서 이미 문법화의 개념을 언급하긴 하였지만 문법화의 정의만으로는 문법화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Bybee *et*

al.(1991)에서 논의된 단일 방향성 가설(unidirectionality hypothesis)을 토대로 한 문법화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문법화의 진행 방향

- ㄱ. 의미: 구체적>추상적
- ㄴ. 음운: 자립적>의존적
- ㄷ. 범주: 어휘적>문법적

이와 같은 문법화의 진행 방향은 범언어적으로 계속하여 반복되어 나오는 변화 유형을 관찰하고 일반화한 것으로서, 문법화가 결국 의미면에서는 구체성을 지니는 것에서 추상성을 지니는 것으로, 음운의 측면에서는 자립적 요소가 의존적 요소로, 범주적 측면에서는 어휘적 요소가 문법적 요소로 일정한 연쇄적 경로를 밟아 나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강희숙 2012:65). 여기에서 말하는 문법화의 연쇄적 경로란 문법화가 하나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로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Hopper & Traugott(1993:6-7)에서 제시한 있는 연쇄적 경로는 다음과 같다.

(11) 내용어(content word)>문법어(grammatical word)>접어(clitic)>굴절 접사(inflexional affix)

이와 같은 범주 가운데 내용어란 그 자체가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범주를 말하는데, 형태적 복잡성이나 통사적 특징을 토대로 이를 다시 주범주(major category)와 중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명사와 동사는 주범주에, 형용사와 부사는 중간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하면, 전치사나 접속사, 접사, 관사, 조동사 등은 중간 범주 다음의 소범주(minor category)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바, (11)의 경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12) 주범주(명사, 동사)>중간 범주(형용사, 부사)>소범주(전치사, 접사, 접속사, 관사, 조동사) >접어>굴절 접사

역문법화는 문법화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되는 변화로서 안주호(2001:99)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13) 역문법화 방향

- ㄱ. 문법적 기능을 하던 것> 어휘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 ㄴ. 더 문법적 기능을 하던 것> 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 ㄷ. 의존적 요소이던 것> 자립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위에서 역문법화의 경로는 문법화와 반대로 밟아가는 것임을 이미 밝혔다. 따라서 역문법화의 경로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 (14) 굴절 접사> 접어>소범주(접사, 접속사, 관사, 조동사)>중간 범주(형용사, 부사)>주범주(명사, 동사)(강희숙 2012:71)

2.2.2.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기제

문법화론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학자들은 문법화 기제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왔다. 본고에서는 문법화의 기제 가운데 은유(metaphor), 유추(analogy), 재분석(reanalysis), 일반화(generalization), 흡수(absorption)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은유(metaphor)란 ‘어떤 대상이나 개념과의 비교를 시사하면서, 어떤 단어나 구를 그것들이 문자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대상이나 개념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Lyons(1977:103)는 형태와 의미간의 복잡한 도상성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의 속에서도, 대개의 학자들은 은유를, ‘어떤 대상을 다른 종류의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의 전이’라고 파악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이성하 1998:220). 은유가 문법화의 기제로 사용되는 예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5) 사람> 물체> 행위> 공간> 시간> 질

- | | |
|---------------------------------|----|
| (16) 가. 그 사람 <u>뒤</u> 에 흠이 묻었다. | 인체 |
| 나. 그 건물 <u>뒤</u> 에 주차장이 넓다. | 공간 |
| 다. 한 시간 <u>뒤</u> 에 만나자. | 시간 |
| 르. 나는 수학에서 많이 <u>뒤</u> 진다. | 질 |

(15)은 Heine *et al.*(1991)에서 제시한 시·공간 표지의 발달을 포함하는 존재론적 범주의 변화 방향이다. (16)은 한국어의 ‘뒤’가 문법화 변화의 과정을 보이는 예들이다. (16가)에서 ‘뒤’가 신체부위 명칭으로 쓰이고, (16나)에서 인체에서 공간 개념으로 변화되며, (16다)에서 ‘이후’를 나타내는 시간적 개념으로 쓰이고, (16르)에서 더욱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어서 유추(analogy)란 기제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말해 유추란 어떤 언어 형태가 의미나 기능, 음성적으로 비슷한 언어 형태에 동화하여 변하거나 또는 그런 형태가 새로 생겨나도록 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유추가 문법화에서 가지는 의리를 보면, 유추는 의미역 요인, 언어별로 선호되는 어순, 동사의 견인과 더불어 어순변화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 (17) 가. 걷다, 걷고, 걸어서, 걸은
나. 묻다, 묻고, 물어서, 물은

(17)은 유추가 동사의 변화형에서 보이는 예들이다. (17가)은 ‘걸-’이 각각 어미 ‘다, 고, 어서, 은’과 결합할 때 이형태의 모습이다. (17나)에서 ‘걸-’과 같이 ‘ㄷ’을 받침으로 하는 어근이 ‘묻’은 ‘걸’처럼 변화의 형태들을 보인다.

다음으로 재분석(reanalysis)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분석을 Traugott(1980:49)에서 언어 형태의 구조적인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가장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분석의 예는 단어 형성에 있어 합성어를 만든 현상을 들 수 있다. 안주호(1997:35)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 (18) 가. 늙은이/젊은이/어린이
 나. 박은이/피넛이/웁긴이

(18가)의 합성어는 모두 [[늙-] (으)ㄴ # 이], [[젊-] (으)ㄴ # 이][어리-] ㄴ# 이]의 구조로서 보문과 보문소, 의존명사 ‘이’로 결합된 구성이다. 여기에서 경계가 재분석됨에 따라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로 보문소와 의존명사 사이의 경계가 재분석되어 하나의 어휘로 굳어졌다.

이어서 일반화란 어휘소의 의미가 점점 특수성을 잃어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의미 변화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반화는 Bybee & Pagliuca(1985:63)에서의 지적대로 문법화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의미의 특수성이 적을 수록 그 해당 어휘소가 쓰일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것이 쓰이는 분포가 넓다는 점에서 일반적이라 할 수 있고, 둘째는 그 어휘소의 의미 자질이 특수 자질이 적다는 점에서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성하 (1996다:52)에서 논의한 ‘버리다’의 의미 변화를 토대로 일반화를 보고자 한다.

- (19) 가. 신문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 고향을 버리고 타향으로 갔다.
 다. 그런 나쁜 생각은 버려라.
 르. 애를 안 때리면 버린다.

(19)은 ‘버리다’의 여러 가지 의미가 공시적인 예들에서 나타난 것이다. (19나, 다, 르)에서 보이는 예들은 추상적인 ‘버림’을 뜻하기 때문에 의미가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흡수란 한 문법소가 원래 담당하고 있던 기능을 잃어 버리면서 그것이 쓰이는 문맥에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문법화라는 과정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 문법소는 점점 쇠퇴해지고 새 문법소가 등장하여 옛 문법소를 대체해 버리게 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것을 재건(renewal)이

라 부른다. 또한 이들이 서로 공존하다가 그중 하나가 주도적인 문법소가 되면서 다른 경쟁자들이 쓰이던 문맥에서까지 해당 문법기능을 전담하게 되는 것을 전문화라 한다.

2.2.3. 문법화의 기제와 통신 언어의 동기

어떤 문법화 현상은 때로 한 가지 기제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때가 있긴 하지만, 문법화의 일반적인 기제를 한 가지만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언어 변화가 인간의 인지적 책략에 의해 유발되고 있으며 인지적 책략이 한 가지로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면, 전반적인 언어 변화에는 많은 기제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한 가지 변화에도 여러 가지의 기제들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이러한 점에 Bybee *et al.*(1994:297)에서는 여러 가지의 문법화 기제들을 인정하고 이 기제들이 문법화의 진행정도에 따라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된 도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이성하 1998:226).

<표 2> 문법화의 단계별 기제

초기	중기	후기
----- 은유 -----		
-----	추론	----->
-----	일반화	-----
		----- 조화 ---->
		----- 흡수 ---->

<표 2>에서 보듯이 은유는 문법화의 초기에만 작용한다. 이유는 문법화소의 의

미가 있어야 그 의미가 은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문법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의미가 거의 다 소실되어 은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로 후기단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초기단계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화는 의미를 점점 약화시키는 기제이기 때문에 초기·중기 단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데 반해, 후기에 가서 의미기능이 약화되고 나면 실제로 의미요소들이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가 사용되지 못한다. 그러나 추론은 대화의 의미협상 과정에서 늘 일어나는 것이며, 모든 언어 형태는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이 있기 때문에 문법화의 전 단계에 거의 고루 사용되는 기제는 반드시 어느 한 가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기제가 동시에, 혹은 연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이성하 1998:227).

그러면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단계가 통신 언어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통신 언어의 발생 동기는 ‘경제적 동기’, ‘표현적 동기’, ‘오락적 동기’, ‘유대 강화 동기’, ‘심리적 해방 동기’가 있다. 이 다섯 가지 동기는 다시 1차적 동기와 2차적 동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차 동기에는 경제적 동기와 표현적 동기가 들어가고 2차적 동기에는 오락적 동기, 유대 강화 동기, 심리적 해방 동기가 들어간다. 1차적 동기는 통신 이용 초기에 통신 언어가 나타나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면, 2차적 동기는 통신 언어가 어느 정도 뚜렷해지고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유형의 확대를 가져오고 또 많은 통신 이용자들에게로 널리 보급되는 데 기여한다(이정복 2003:32).

통신 환경에서 은유 등 인지 방식으로 인해 언어 개신형이 많이 나타난다. 인터넷에서 하는 대화는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딱딱한 문자로 이루어진 것이기 일쑤이다. 이렇게 교류하다 보니 대화자의 슬픔, 즐거움, 놀라움 등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단점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 화자들이 키보드에 있는 숫자와 부호를 통해서 이모티콘을 만들거나 아예 그림과 용량이 작은 애니메이션을 조합함으로써 감정을 가시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또한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 통신 이용자들이 음절을 줄이거나, 붙여 쓰거나, 약어를 쓰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통신 언어 동기 중의 경제

적 동기와 표현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동기와 표현적 동기로 인해 일상어와 다른 언어 변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언어 변이가 생기게 된 동기는 경제적 추구하고 표현적 추구때문이며, 그 표현 방식은 흔히 알고 있는 소리나는 대로 적기, 음절 줄이기 등 유형이지만, 결국에 은유와 같은 인간이 사물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 과정은 통신 언어의 새 유형이 생기는 것으로서 문법화 1단계에 있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한 가지 공감되는 언어 개신형을 만든 다음 유추, 추론, 재분석 등으로 인해 통신망에서 전파되며, 일상생활까지 확대된다. 언어 변이가 생기면 어떤 변이형이 쓸 만한 가치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떨어지면서 사라지는가 하면 어떤 변이형이 사용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강제 변이형으로 쓰이면서 한 가지 언어 형태로 어휘부에 저장될 수 있다. 통신 언어에서 출현한 새 언어나 표현 방식이 다른 네티즌들에게 공감이 되면 인터넷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창의력이 발달한 네티즌들이 단순히 그 개신형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재분석, 유추, 환유 등을 통해서 그 개신형의 의미, 형태와 문법적 기능을 언제든지 확장시킬 수 있다. 오락과 해방을 추구하는 네티즌이 더 공감되는 언어 변이를 만들 수도 있다. 통신 언어가 확대되는 과정은 문법화 제2단계에 있을 수 있다.

통신 언어가 조화, 일반화, 흡수 등의 단계를 거쳐서 정착되어 언어 체계 중 제자리를 매기게 된다. 통신 언어가 확산하는 과정에 점차 비표준어의 지위에서 벗어나고 일반 화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일반화된다. 그리고 통신 환경이 빠른 전달성으로 인해 강제 개신형이 급속히 확대될 수 있고, 일반 언어 개신형의 확대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소요한다. 통신 언어가 표준어로서 흡수되는 과정이 문법화의 제3단계와 같은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통신 언어의 출현과 전파 및 정착의 과정은 문법화와 역문법화 역동적인 과정과 동일한 방향을 보인다. 통신 언어의 발전 과정에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기제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언어 원리를 연구하는 문법화 또는 역문법화론이 가지는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다.

Ⅲ. 한국어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3.1. 한국어 통신언어의 문법화

문법화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이성하(1998:291)에서는 문법화가 이루어지는 층위에 따라서 어휘적 층위, 통사적 층위, 담화적 층위의 세 가지¹⁴⁾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최동주(2007:525)에서는 문법화의 결과 및 기원적 구성에 따른 분류와 문법화 과정에 따른 분류를 제시하였다¹⁵⁾. 본고에서는 문법화의 결과 및 기원적 구성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통신 언어에서 문법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20) ㄱ. 명사>부사¹⁶⁾: 완전, 대박, 진심, 본격, 강력, 짱
 ㄴ. 명사>접미사: 빠, 짱, 덕후, 느님, 통령

14) 이성하(1998:291)에 따르면 층위별 분류를 사용하는 것은 이 분류에 따라 특정한 범주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어휘적 층위의 문법화는 또 다시 ‘신체부위 명사의 문법화, 시간표시 명사의 문법화, 관계표시 명사의 문법화, 행위동사의 문법화, 이동동사의 문법화, 존재동사의 문법화’ 등으로 나누었고, 통사적 층위의 문법화는 ‘복합문의 문법화, 보문 연결사의 문법화, 조건표지 연결사의 문법화’ 등으로 나누었고, 담화 층위의 문법화는 ‘주제표지의 문법화, 주제전환표지의 문법화’ 등으로 나누었다.

15) 최동주(2007)에서 결과 및 기원적 구성에 따른 분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 ㄱ. 조사화 (조사)+체언+(조사); (조사)+용언+연결어미
 ㄴ. 어미화: 선어말어미화…(연결어미)+(보조)용언 어간
 연결어미화…명사절 형성 형식+조사; 연결어미+보조사
 종결어미화…선어말어미+종결어미, 인용구성(축약); 기타(절단)

문법화 과정에 따른 분류는 ‘형태의 축소가 계기가 되는 경우’, ‘의미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경우’, ‘문법적 대립의 상실에 의한 경우’로 나누었다.

16) 본문에서 제시한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과정은 문법화의 결과에 도달하는 것과 그 결과에 도달하기 전의 중간 단계에 있는 형태를 다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명사>접미사’의 문법화와 같은 경우에 명사가 반드시 접미사가 되어야 문법화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가 쓰이던 것에서 접미사로 쓰이는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접미사가 되기 전의 형태로 쓰이는 것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다 포함한다는 말이다.

3.1.1. 명사>부사

한국어 통신 언어에서 자립성이 있는 명사가 부사로 사용됨으로써 문법화된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완전’, ‘대박’, ‘진심’, ‘본격’, ‘강력’, ‘짱’ 등이 있다.

3.1.1.1. 완전

명사 ‘완전’은 원래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의 뜻으로 쓰이는데 ‘매우’의 뜻으로 부사로 쓰이고 있다.

‘완전’의 용법이 바뀐 현상에 대해서 이정복·양명희·박호관(2006)에서는 ‘기능 바꾸기’ 현상으로 보았지만, 강희숙(2012)에서는 ‘완전’이 부사로 변화하는 방향이 문법화의 경로와 일치하다는 점에서 문법화 현상으로 보았다.

‘완전’의 문법화 경로를 살피기 전에 우선 ‘완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완전’의 사전적¹⁷⁾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1) ㄱ. (명사로서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 예. 금융 시장의 완전 개방, 노사 분류 완전 타결
ㄴ. ‘완전히’의 어근.

위에서 본 대로 ‘완전’은 주로 명사로 쓰이고 있다. 서술성 명사¹⁸⁾ 앞에서 관형어로 쓰이거나, 접미사 ‘히’가 붙어 부사어로 쓰인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완전’이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 직접 트위터¹⁹⁾에서 관찰한 용례를 보이면 다

17) 본문에서 어휘적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 한국어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하고, 중국어의 경우는 ‘百度(baidu)百科’ 중의 사전을 참고하였다.

18) 명사는 ‘연구, 진출, 개방, 타결’ 등과 같이 접미사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서술성 명사와 그렇지 못한 비서술성 명사로 구분된다(이선희 1998).

19) 트위터는 140자 이내 단문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이트다. twitter(지저귀다)의 뜻 그대로 재잘거리듯이 일상의 작은 얘기들을 그때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음과 같다.

(22) 가.



나.



위의 용례는 명사 ‘완전’의 기능 바꾸기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22)은 ‘완전’이 동사 ‘웃기다’, (22나)은 형용사 ‘이쁘다’를 수식하는 것이다.

‘완전’의 경우, 원래 서술성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이거나, 접미사 ‘히’가 붙어 부사어로 쓰이는 말이었다. 그러나 (22)에서는 ‘완전’이 부사 ‘완전히’가 쓰여야 할 자리에서 ‘완전’ 자체로 부사로 쓰임으로써 기능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22)에서 보인 ‘완전’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에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으로 변하고, 주범주에 속하는 명사에서 중간 범주에 속하는 부사로 바뀔으로써 문법화의 경로를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1.1.2. 대박

‘대박’은 원래 명사로 쓰이지만 ‘매우’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쓰임으로써 ‘명사>부사’의 문법화를 보여준다. ‘대박’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대박’의 사전적

다. 사람들이 의견, 생각, 경험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블로그, 미니홈피, 메신저 등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라 하는데, 트위터는,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에 미니홈피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의 신속성을 한데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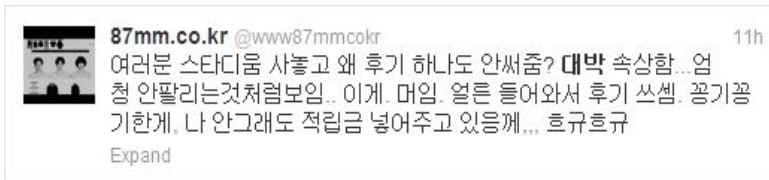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3) 가. 대박(大-) : 명사로서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나. 대박(大舶) : 바다에서 쓰는 큰 배, 큰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24) 가. 초강추! 25일 개봉하는 영화 ‘살인의 추억’이 영화 팬들의 입소문을 타고 **대박**을 예고하고 있다.
- 나. **대박** 터뜨리고 돈 마니 버세요.

(23)는 ‘대박’의 사전적 정의이고, (24)는 대박이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표하는 뜻으로 쓰인 예이다. 그 문법 범주는 명사이다. 그러나 ‘대박’은 최근 들어 새로운 사용 양상을 보인다.

- (25) 가.



- 나.



(25)의 ‘대박’은 각각 형용사 ‘속상하다’, 동사 ‘웃기다’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 이들 ‘대박’은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뜻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대박’은 주범주에 속하는 명사에서 중간 범주에 속하는 부사로 변화되며, ‘일이 크게 이루어짐’이란 뜻에서 ‘정말’이란 추상적인 의미로 변화됨으로써 ‘명사>부사’로의 문법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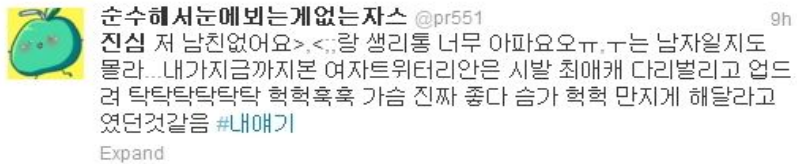
3.1.1.3. 진심

한국의 통신 언어에서 최근 ‘명사>부사’로의 문법화를 보이는 또 다른 예로는 ‘진심’을 들 수 있다. 먼저 ‘진심’의 사전적 정의를 통하여 ‘진심’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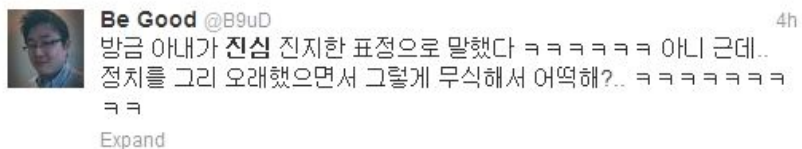
(26) 진심(眞心)²⁰⁾: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26)에서 보이듯이 ‘진심’은 명사로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명사로 쓰이던 ‘진심’은 통신 언어에서 부사로 쓰이는 양상을 보인다.

(27) ㄱ.



ㄴ.



20)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진심’의 정의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들은 통신 언어에서 쓰이는 ‘진심’과 아예 관계가 없으므로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다른 사례의 의미도 통신 언어와 관계가 있는 것만 제시하기로 한다.

ㄷ.



yeonun @yaongie

4h

진심 쪽팔림ㅋㅋㅋㅋ 저 아줌마가 지지율 40프로의 대통령 후보라
니

Expand

(27)에서 보이는 예문을 보면 (27ㄱ)의 ‘진심’은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고, (27ㄴ)의 ‘진심’은 형용사 ‘진지하다’, (27ㄷ)의 ‘진심’은 동사 ‘쪽팔리다’를 수식하고 부사로 쓰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사>부사’의 문법화를 하는 과정에 단순히 문법 범주의 전환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전환도 동시에 이루어져 ‘정말(로)’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강희숙 2012:75). (27)의 ‘진심’은 ‘정말’이라는 풀이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신 언어에서 쓰이는 ‘진심’이 ‘명사>부사’로의 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1.1.4. 본격


자립 명사로 ‘근본에 맞는 올바른 격식이나 규격’의 뜻으로 쓰이던 ‘본격’은 통신 언어에서 부사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우선 ‘본격’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28) ㄱ. (명사로서) 근본에 맞는 올바른 격식이나 규격. 예. 그러한 인사법은 우리 전통적인 인사법의 **본격**에 걸맞지 않다


ㄴ. (명사로서) 본디의 격식이나 규격.

(28) 본격의 사전의 정의에서 본 대로 ‘본격’은 주로 자립명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에 등록이 안 돼 있지만 ‘본격’은 흔히 ‘-적’과 ‘-적으로’와 결합하여 관형어나 부사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 ‘본격’은 조사를 안 붙여도 그 자체가 부사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그 일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9) 가.

 **withMBC** @withMBC 22h
 [보고싶다] "내 허락없이, 죽어도... 죽지마" 박유천-윤은혜-유승호
 본격등장! 오늘밤 9시55분 #보고싶다 화려한 2막이 열립니다!
bit.ly/URXJRE twitpic.com/bezsby
 Retweeted 96 times
[View photo](#)

나.

 **독설닷컴** @dogsul 18 Nov
 김재철도 울고 갈... RT @kbsunion: '편파방송종결자' 부역사장
 길환영의 대선 편파보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이상해도 너-무 이상
 한 단일화 보도!!! kbsunion.net/930
[Expand](#)

다.

 **KBS 뉴스** @kbsnewstweet 2h
 스마트폰, 무선충전시장 열려!...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자기공진
 방식 충전기 제품들이 내년 본격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LS전선은
 올해 초 이를 실증화한 모델을 선보였으며 삼성전기 역시 개발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j.mp/SbJB8O
[Expand](#)

리.

 **KBS 한국방송** @MyloveKBS 18 Nov
 장혁, 이다해, 이범수, 오연수, 윤두준, 이준 등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아이리스2】 이달 말 헝가리 첫 촬영으로 본격 신화
 탄 쏘아 올린다! 기사보기>> j.mp/RNMj2Q twitpic.com/beieta
[View photo](#)

위 용례 가운데 (29가)은 서술성 명사 ‘등장’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는 것으로서 ‘본격’의 기능이 확장된 것이며, (29나)은 ‘본격적으로’로 나타나고 동사 ‘시작하다’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는 것이다. (29다, 리)에서는 ‘본격’이 동사 ‘출시되다’와 ‘쏘아 올리다’를 수식하는 예이다. 원래 ‘본격적으로’와 같은 부사가 쓰여야 할 자리에 ‘본격’이 쓰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본격’은 주범주에 속하는 명사에서 중간 범주에 속하는 부사로 변화된 문법화를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1.1.5. 강력

‘강력’은 (30)에서 보인 것처럼 ‘힘이나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명사였는데 오늘날에 부사로 쓰이고 있다.

(30) (명사로서) 힘이나 영향이 강함. 예. **강력** 대응, **강력** 단속.
강력한 적이나 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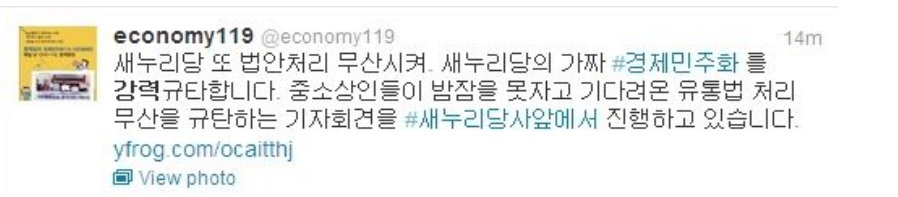
트위터에서 관찰된 ‘강력’의 새 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가.



A screenshot of a tweet from the account @intro_utaitebot. The profile picture shows a colorful graphic with the text 'Minor 歌い手'. The tweet text is in Korean and mentions a male utaite named Minoru (古池ゆうすけ) with a high-quality voice and a strong personality. The tweet ends with '강력추천' (strongly recommended). There is an 'Expand' link below the text.

나.



A screenshot of a tweet from the account @economy119. The profile picture shows a yellow background with a building. The tweet text is in Korean and discusses the New Korea Party's stance on the #EconomicDemocracy movement, stating that they will not support the bill and will continue to demand the abolition of the bill. It includes a link to yfrog.com/ocaitthj and a 'View photo' button.

다.



A screenshot of a tweet from the account @rlagywhfkdrp. The profile picture shows an orange square with a white egg. The tweet text is in Korean and discusses the issue of card companies' fees and the impact on users, mentioning that users are protesting against the fees. It includes a link to bit.ly/10xdnXK and an 'Expand' link below the text.

위의 용례 가운데 (31가)은 ‘강력’이 서술성 명사 ‘추천’을 수식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이 확장되는 것이다. (31ㄴ, ㄷ)에서 각각 동사 ‘규탄하다’, ‘반발하다’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강력’은 ‘명사>부사’로의 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1.1.6. 짱

‘짱’은 자립명사로 ‘우두머리’의 뜻으로 쓰이는데 오늘날에 ‘최고, 매우, 굉장히’ 등의 의미로 부사로 쓰이고 있다.

‘짱’의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등록돼있지 않지만 구어에서 ‘너 짱이야’처럼 명사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이정복·양명희·박호관(2006)에서는 ‘짱’이 명사로 쓰이던 ‘장’의 경음화 현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짱’은 명사로 쓰이다가 통신 언어에서 ‘최고, 가장, 매우’라는 뜻으로 부사로 사용됨으로써 기능이 바뀐 것이라고 하였다. 강희숙(2012)에서는 역시 ‘짱’을 ‘장’의 경음화된 형태로 보고, ‘짱’이 ‘자립명사>합성명사 요소21)>부사’의 과정을 거쳐서 ‘명사>부사’로의 문법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 네이버 오픈 사전에서 ‘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 (32) ‘짱’은 원래 청소년들 사이에서 싸움을 잘하는 동년배를 부정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에게 ‘노짱’이라는 별칭이 붙으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짱이야’, ‘짱 좋아’, ‘짱 나빠’ 등의 표현이 유행하면서 ‘매우, 굉장히, 대단히, 최고’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짱이라는 표현의 유래를 회장처럼 가장 직급이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에서 찾는 경우도 있고 장기의 “장이야!”라는 표현에서 찾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에서 나이 어린 사람의 이름 뒤에 붙이는 단어인 ‘짱(ちゃん)’을 연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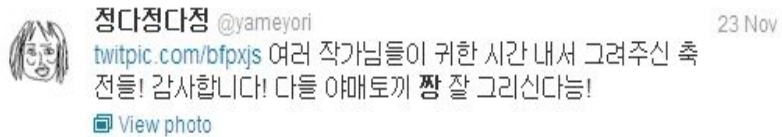
21) 강희숙(2012:74)에서 ‘얼짱, 몸짱, 노래짱, 디카짱’과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이들 예문 중의 ‘짱’을 합성명사를 구성하는 요소로 쓰인다고 하였다.

- (33) ㄱ. (명사로서)어떤 조직체나 부서 단위의 우두머리. 예. 이사장, 회사장.
 ㄴ. (명사로서)나이를 따져 순위임을 나타내는 말. 예. 연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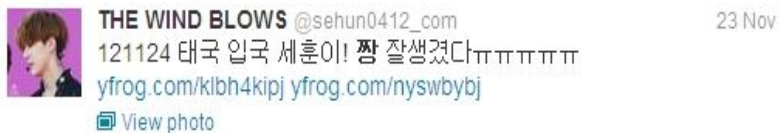
위의 (33)에서 본 바와 같이 한자어 ‘장’이 ‘우두머리’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짱’이 가지는 ‘최고’의 의미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소지(2005)에 따르면 어떤 형태소가 일체의 음운론적 제약 없이 특정 의미를 가지고 특정 문법적 기능을 할 때 항상 경음으로 실현된다면, 어휘부에 그것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이 자립명사로 쓰이면서 ‘우두머리’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짱’으로 경음화될 수 있다²²⁾.

위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짱’은 ‘우두머리’의 뜻으로 자립 명사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통신 언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짱’이 부사로 쓰이는 예도 관찰할 수 있다.

- (34) ㄱ.



- ㄴ.



22) 임홍빈(1981)에서는 경음으로 실현되는 한자어들을 ‘사전치성 명사’로 파악하였다. 송기중(1992)에서는 예외적인 한자어 경음화에 대해 사이시옷의 관점을 처음부터 배제하였다. 국어의 일반 규칙을 따르는 경음화를 제1류 경음화로, 특정 형태소가 특정 의미로 사용될 때의 경음화를 제2류 경음화로 구분하였는데, 결국 ‘장’의 경음화는 제2류 경음화에 해당한다(최윤지 2008:327).

ㄷ.



좋은날 @B1A4_Beautiful

19 Nov

★오늘 날씨 완전 대박 짱 추워여ㅠㅠㅠㅠ 감기 안걸리게 꼼꼼 싸
매고 나가세요!!!! 그리고 스트리밍 잊지말고!!!!

pic.twitter.com/81im2Kv1

[View photo](#)

위의 예들 가운데 ‘짱’은 위의 ‘최고, 가장, 매우’라는 뜻으로 부사로 사용됨으로써 (34ㄱ)의 ‘잘 그리다’ 과 같은 동사류, (34ㄴ)의 ‘잘 생기다’, ‘출다’와 같은 형용사류 어휘를 수식한다. 따라서 ‘짱’은 자립성이 있고 ‘우두머리, 최고’의 뜻으로 쓰이는 명사에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문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2. 명사>접미사

‘명사>부사’의 문법화 현상 외에도 명사가 문법적 기능을 획득하여 접미사로 쓰이는 예도 관찰되었다. 한국어 통신 언어에서 ‘명사>접미사’로의 문법화를 보이는 예로는 ‘빠’, ‘덕후’, ‘느님’, ‘통령’, ‘짱’ 등을 들 수 있다.

3.1.2.1. 빠

‘빠’는 ‘빠순이’에서 온 말로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열렬히 추종하는 여성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인데 ‘특정 대상을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처럼 쓰이고 있다.

‘빠’의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수록돼 있지 않지만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빠’의 의미와 용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5) ‘빠’는 어딘가에, 특히 한 사람에게 심하게 빠져 있는 사람을 비하해서 부르는 비속어

로, 반댓말, 즉 안티를 가리키는 말로는 ‘까’가 쓰인다. 연예인의 극성 팬의 경우 남자는 빠돌이, 여자는 빠순이라 부른다. ‘빠’는 주로 빠져있는 대상과 합쳐진 약어가 쓰인다. 황우석 사건 이후로 ‘황빠’·‘황까’도 쓰인다.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임요한’의 팬인 ‘임빠’, 안티인 ‘임까’, ‘박지성’, ‘박주영’의 팬인 ‘박빠’, ‘박퀴벌레’, 안티인 ‘박까’도 인터넷에 널리 퍼진 은어이다.

위의 정의에 따라서 요즘 통신 언어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X빠’ 어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6) ㄱ. 노빠, 황빠, 임빠, 박빠.
 ㄴ. 무도빠, 소시빠, 애플빠, 갤럭시빠, 심빠, 돌빠, 국빠, 일빠.

(36ㄱ)의 예는 특정 인물에 심하게 빠져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며, (36ㄴ)의 예는 어떤 대상과 행동에 빠져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36ㄱ)에서 ‘노빠’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황빠’는 황우석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36ㄴ)에서는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무도빠’, 핸드폰 중 애플만 좋아하는 ‘애플빠’, 삼성 갤럭시 시리즈만 좋아하는 ‘갤빠’는 그 대표적 예이다. 위의 용례를 통하여 ‘빠’가 어말 위치에만 있고, 생산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적인 가치가 들어가 있는 말로 맹목적인 추종자들을 낮추어 지칭할 때 접미사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빠’는 명사에서 접미사로 변화하는 문법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1.2.2. 덕후

‘덕후’는 특정, 취미, 사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일본어 오타쿠(おたく)를 변형한 ‘오덕후’를 기본형으로 한 것이다. 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7) ㄱ. 오덕후, 십덕후, 백덕후, 천덕후, 만덕후, 억덕후.
 ㄴ. 소덕후, 원덕후.

ㄷ. 동생덕후.

위의 예는 ‘X덕후’류 단어의 일부이다. ‘덕후’를 기본형으로 한 후 여기서 다시 ‘오’를 숫자 오와 동일시하여 몰입 정도에 따라 (37ㄱ)처럼 ‘십덕후, 백덕후, 천덕후, 만덕후, 억덕후’ 등의 말을 만들어 냈다. 이외에 (37ㄴ)처럼 걸그룹 ‘소녀시대’ 팬을 뜻하는 ‘소덕후’, ‘원더걸스’를 추종하는 ‘원덕후’ 등이 있으며, (37ㄷ)처럼 동생을 지극히 예뻐하는 ‘동생덕후’ 등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어 ‘오타쿠’가 ‘덕후’로 번역되어, 통신 환경에서 전파되면서 ‘어떤 사물에 빠진 사람’의 뜻으로 접미사처럼 기능하게 되었다. ‘덕후’는 ‘명사>접미사’로의 문법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1.2.3. 느님

‘느님’은 절대자를 가리키는 ‘하느님’에서 온 말로 추종자를 극존칭하는 표현이다. 주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이름이나 성에 붙여 사용하는데, 이 또한 접미사로 변하는 진행 중인 문법화 현상을 보인다. 그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8) 유느님, 연느님, 메느님, 의느님, 치느님.

(38)에서 보이는 ‘유느님’은 개그맨 유재석을 가리키는 것이고, ‘연느님’은 스케이터 김연아, ‘메느님’은 축구 선수 메시, ‘의느님’은 연예인들의 성형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몰라보게 예뻐진 연예인을 수술한 성형의사의 실력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치느님’은 ‘치킨+하느님’에서 온 말로 대표적인 야식 음식인 치킨을 달리 가리키는 말이다(박동근 2012:71).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느님’은 명사에서 접미사로 변화하는 문법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1.2.4. 통령

‘통령’은 ‘일체를 통합하여 거느림 또는 그런 사람’의 의미로 명사로 쓰이지만 통
신 언어에서는 ‘어떤 분야에 최고인 사람’의 뜻으로 접미사처럼 쓰이고 있다.

(39) 개통령, 뽀통령, 락통령, 춤통령, 힙통령, 초통령, 칙통령, 힙통령, 락통령.

‘X통령’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서 온 말로 ‘느님’과 마찬가지로 극존칭 표현
이다. ‘뽀통령’은 유아들에게 절대적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뽀로로’를 가
리키는 말이며, ‘초통령’은 초등학생의 대통령이란 뜻으로 초등학생에게 큰 인기를
끈 콘텐츠나 아이돌 가수를 이른다. ‘칙통령’은 ‘치느님’과 마찬가지로 ‘치킨+대통령’
에서 온 말로 가격, 양, 맛의 삼박자를 갖춰 치킨계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뜻으로 한
대형마트에서 기획한 ‘통 큰 치킨’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다(박동근 2012:71).

따라서 위의 예문을 통해 ‘통령’은 구체적인 통치자를 가리키는 의미에서 ‘어떤
분야에서 최고로 될 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의미로 범화되었다. 어말 위
치에 분포되었으며 단어의 품사를 명사로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접미사처럼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령’ 또한 명사에서
접미사로 발전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1.2.5. 짱

앞에서 ‘짱’은 원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매우 정말’ 정도의 의미로 쓰
이고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용법도 생겼음을 ‘명사>부사’에서 확인하였다. 이
외에 ‘어떤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의 의미로 접미사²³⁾처럼 사용됨으로써 ‘명사>접
미사’의 문법화가 진행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3) 여기서 말한 접미사로 쓰이는 ‘짱’은 ‘몸짱, 얼짱’과 같은 구조에서 보이는 ‘짱’이며, ‘이사장, 공장
장’에서 접미사로 쓰이는 ‘장’과 의미가 달라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미숙(2008)과 서
충(2011)에서 접미사로 처리하였다.

- (40) 가. 얼짱, 몸짱, 노래짱, 게임짱, 힙짱, 영짱, 맘짱, 속짱, 맛짱.
 나. 올짱, 강짱.

(40)는 ‘X짱’류 어휘이다. (40가)은 ‘짱’의 앞에다가 명사나 명사의 축약어를 붙여서 만든 것이다. ‘얼짱’은 얼굴이 제일 잘 생겼다는 의미고, ‘몸짱’은 몸매가 좋다는 뜻이다. ‘힙짱’은 영어 ‘hip’를 차용해서 엉덩이가 균형 있게 예쁘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40가) 중 다른 예도 ‘명사가 표현하는 사물이 으뜸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40나)의 ‘올짱’은 역시 영어 ‘all’을 한국어 ‘올’로 표시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다 최고이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강짱’은 ‘강도 얼짱’의 약어로서 강조의 의미를 나타냈다.

위의 ‘X짱’류 어휘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짱’은 문법적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짱’은 어말 위치에만 분포한다. 둘째, ‘X’는 대부분 명사이고 일부는 관형어이지만 ‘X짱’은 ‘어떤 분야의 최고’의 뜻으로 명사로 쓰인다. ‘짱’이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X’가 다른 명사나 명사의 줄인 말로 대체될 수 있어 생산성이 있다. 넷째, ‘짱’의 의미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우두머리’라는 구체적 의미에서 ‘어떤 분야의 으뜸이다, 최고’라는 의미로 범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최고, 우두머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의 네 가지 문법적 기능을 통해서 ‘짱’은 전형적인 접미사로 볼 수 없지만 접미사처럼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짱’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우두머리’의 의미를 뜻하는 명사에서 ‘어떤 분야의 으뜸이다, 최고’라는 의미로 접미사처럼 쓰이고 있다. 즉, ‘명사>접미사’로의 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 한국어 통신언어의 역문법화

3.1.에서는 한국어 통신 언어에서 나타난 ‘명사>부사’, ‘명사>접미사’로의 문법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국어 통신 언어 가운데는 문법화의 경로와 달리 ‘문법적인 것에서 어휘적인 것으로 변하고, 추상적 의미에서 구체적 의미로 바뀌며, 의존적으로 쓰이다가 자립적으로 쓰이게 되는’ 과정, 이른바 역문법화를 겪고 있는 예도 관찰되었다. 한국어 통신 언어의 역문법화 현상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개-’, ‘왕-’, ‘초-’, ‘-님’ 등이 있다. 이들을 다시 역문법화가 진행되는 과정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41) 접두사>부사: ‘개-’, ‘왕-’, ‘초-’
 접미사>대명사: ‘-님’

3.2.1. 접두사>부사

한국어 통신 언어에서 접두사로 쓰이던 것이 부사로 변화되는 ‘접두사>부사’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개-’, ‘왕-’, ‘초-’ 등이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3.2.1.1. ‘개-’

‘개-’는 원래 ‘질이 떨어지는’, ‘헛된’, ‘정도가 심한’ 등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로 쓰이지만 ‘매우’의 뜻을 지닌 부사로 쓰이고 있다. ‘개-’의 문법적 기능이 바뀐 현상에 대해서 강희숙(2012)에서는 역문법화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개-’의 역문법화를 살펴보기 전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접두사로서의 ‘개-’의 통사적 특성 및 의미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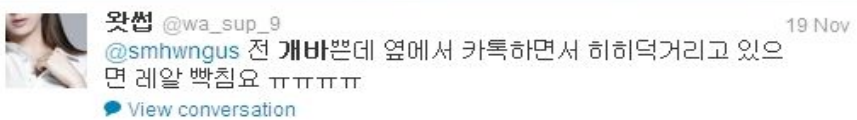
- (42) 가. (일부 명사 앞에 붙어)‘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개꿀, 개떡, 개떡, 개살구 등.
 나. (일부 명사 앞에 붙어)‘헛된’,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개꿈, 개떡, 개수작, 개죽음 등.

ㄷ. (부정적 뜻을 가지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개고생, 개꿀, 개망신, 개망나니, 개잡놈 등.

이러한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개-’는 명사를 어기로 하여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더하여 주는 접두사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접두사로 쓰이던 ‘개-’는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사용 양상을 보인다.

- (43) 가. 나이 한 살 많다고 개 잡치다 맞은 형이 있었지. <네이버 카페>
 토익 열심히 했는데 개 망했다. <해커스 토익 게시판>
 나. 아.. 여자 손님 개 시크하네--ㅋ. <디시인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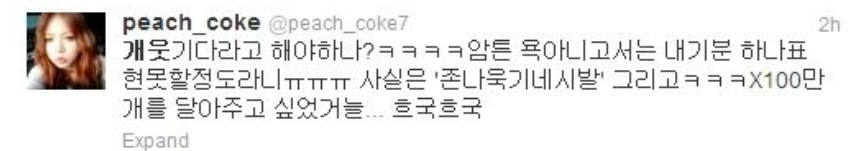
(44) 가.



나.



ㄷ.



위의 예들 가운데 (43)은 강희숙(2012:81)에서 제시된 예로서 (43가)은 ‘개’가 ‘잡치다, 망하다’ 등과 같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인 예이고 (43나)은 형용사 ‘시크하다’를 수식하는 예이다. (44)는 트위터에서 관찰된 예로서 각각 ‘바쁘다, 싫다, 웃기다’ 수식하는 예이다. (43)과 (44)의 ‘개’는 ‘매우’나 ‘너무’ 또는 ‘정말’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정도 부사의 의미 기능을 지닌 것을 보인다. 그리고 통신 언어로서의

특성에서 출발하여 (44)의 예는 경제성으로 인해 붙여 적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용례를 통해서 ‘개-’는 명사를 어기로 하고 파생어를 구성하는 데 기능하는 접두사의 범주에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의 범주로 변화되며, 의미에 있어서 원래 의미에서 ‘매우’나 ‘너무’ 또는 ‘정말’ 정도로 확대되며, 이른바 접두사에서 부사로 역문법화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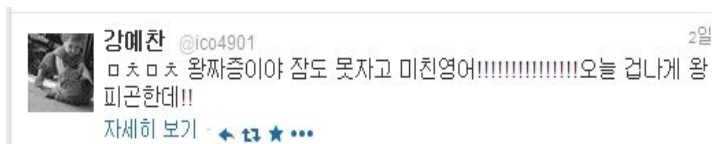
3.2.1.2. ‘왕-’

‘개-’처럼 원래 접두사로 쓰이는데 통신 언어에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획득하여 용언류를 수식하는 부사로 됨으로써 역문법화를 겪고 있는 예로서는 ‘왕-’도 들 수 있다. 우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정의를 통하여 ‘왕-’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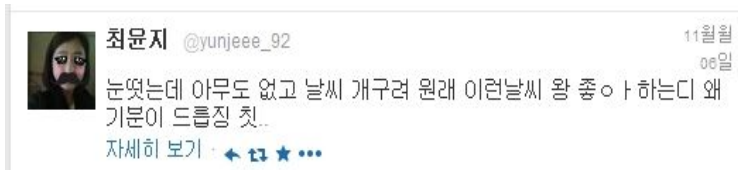
- (45) 가. (동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보다 큰 종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나. (몇몇 명사 앞에 붙어) ‘매우 큰’ 또는 ‘매우 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다. ‘매우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위와 같은 사전의 정의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왕-’은 원래 정도를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그러나 한국어 통신 언어에서는 ‘왕-’이 접두사가 아닌 부사로 쓰이고 있음이 특징이다.

- (46) 가.



- 나.



(46ㄱ)의 ‘왕’은 ‘짜증이다’를 수식하는 부사로 기능하고 있으며 (46ㄴ)의 ‘왕’은 ‘매우, 아주’ 정도의 의미를 지닌 부사로 쓰이고 동사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 언어에서 접두사로 쓰이는 ‘왕-’은 부사로서 역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1.3.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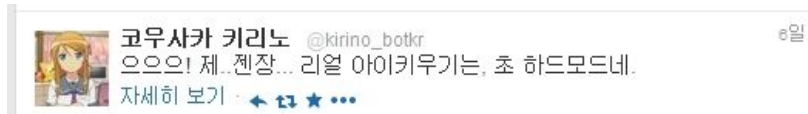
한국어 통신 언어에서 ‘접두사>부사’로 역문법화된 현상에 해당하는 또 다른 예로는 ‘초-’를 들 수 있다. ‘초-’는 ‘어떤 범위를 넘어선’의 뜻이나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였는데 통신 언어에서 ‘매우’의 뜻으로 부사로 쓰이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초-’의 원래의 의미 기능과 통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47) ㄱ. ‘어떤 범위를 넘어선’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초**당파(超黨派).
- ㄴ.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초**고속(超高速).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통해 ‘초-’는 원래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어떤 범위를 넘어선’ 또는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초-’가 부사로 쓰이는 예를 관찰할 수 있다.

- (48) ㄱ.



ㄴ.



위의 예들 가운데 48(ㄱ)은 ‘초’가 부사로 쓰이고 ‘하드모드네’를 수식하는 예이고, (48ㄴ)은 ‘초’가 ‘리얼’ 정도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는 예이다. ‘초’의 의미는 ‘매우’로 해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접두사로서 소범주에 속하는 ‘초’가 중간 범주에 속하는 부사로 변하는 역문법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2.2. 접미사>대명사

‘-님’은 원래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이는데 한국어 통신 언어에서 접미사가 아닌 2인칭 대명사로 쓰인다. 이런 과정에서 ‘-님’은 문법 기능을 하는 소범주에서 어휘 기능을 하는 주범주로 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님’의 역문법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님’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9) ㄱ.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사장님, 총장님 등.
- ㄴ.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달님, 별님, 해님 등.
- ㄷ. (옛 성인이나 신격화된 인물의 이름 뒤에 붙어)그 대상을 높이고 존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위의 설명에 따르면, ‘님’은 일상어에서 대상에 대한 높임의 뜻을 지닌 접미사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신 언어로서의 ‘님’은 (49)과 같은 일상어에서의 용법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쓰이는 한편, 자립성을 지닌 2인칭 대명사 호칭으로도 쓰이고 있다.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50) ㄱ. 안녕하세요 **님**덜아..~후훗~/**님**들아 왜 이런지 전 잘 모르겠지만~분위기가 왜 이렇저-토미님은 몇 살?

ㄴ. **님**은 24살? 남은 **님**들은 왜이리 조용한가요? 그냥 아까 세정님이 강촌 얘기 하시길래.

(51) ㄱ.



맥주,입니다. @nabdora_jebal

21 Nov

헐.. **님**들.. 너네 하마님 알지 하마느님? 나뻘고 너네가 다 팔췌하는 그분.. 나 그분이 방금 우와 씨 와.....그분이 나 팔로해줌.. 근데 나도 이해안감...나재미없...아님 나 재밌자나 그래서 나 팔로하심ㅇㅇ

Expand

ㄴ.



타마고 본게 @DCtamago_

2h

요즘 떡밥 순환이 이거임 누구좀 낚아야지 야 이거봐봐 ㅋㅋ -> 헉 씨 발 진짜? 쳐들었네--> **님**들 이거좀보소 이게 다 여성부때문임 ->헉 등신같지만 여성부라니 믿긴다->존나퍼짐->아니잖아 등신아--

Expand

위에 예들 가운데 (50)은 이정복·양명희·박호관(2006)에서 제시한 예들이고 (51)은 트위터에서 쓰이는 예이다. ‘님덜아’, ‘님들아’, ‘님’, ‘님들’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님’이 대명사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 (51)에서 본 바와 같이 ‘님’은 이름과 성명 뒤에 붙여서 높음을 표시하는 문법적 기능에서 인터넷에서 대화 대상을 표하는 어휘적 의미로 변하고, 의존적인 지위에서 독립성을 획득하여 독립성이 있는 대명사로 변함으로써 역문법화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정리

이장에서 한국어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을 기원적 구성과 결과 및 그 과정을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통신 언어의 문법화 현상을 ‘명사>부사’, ‘명사>접미사’ 등으로 나누었고, 역문법화 현상을 ‘접두사>부사’, ‘접미사>명사’로 나누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결과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 한국어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구분	유형	사례
문법화	명사>부사	완전, 대박, 진심, 본격, 강력, 짱
	명사>접미사	빠, 덕후, 느님, 통령, 짱
역문법화	접두사>부사	개-, 왕-, 초-
	접미사>대명사	-님

IV. 중국어 통신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2012년 6월 현재 중국에서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5억 3800만 명에 이르렀다²⁴⁾. 이에 따라 중국 인터넷 통신 언어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일상생활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 통신은 변화에 민감한 젊은 세대가 주사용층이고, 사용자 층의 범위가 위보다는 아래로 더 빨리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통신 언어 환경은 현재 중국어 사용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에게 중요한 언어적 환경을 제공하므로, 향후 중국어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통신 언어와 그에 따른 언어 환경에 대해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

4.1. 중국어 통신언어의 문법화

중국어 통신 언어에서 문법화를 보이는 예들은 크게 ‘형용사>접두사’, ‘조사>접두사’, ‘명사>접미사’, ‘동사>접미사’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에까지 관찰된 예를 분류해서 보이면 다음과 같다.

(52) ㄱ. 형용사>접두사: 微(wēi)

ㄴ. 개사>접두사: 被(bèi)

ㄷ. 명사>접미사: 門(mén), 男(nán), 女(nǚ), 哥(gē), 姐(jiě), 叔(shū), 嫂(sǎo), 帝(dì), 客(kè), 奴(nú), 族(zú)

ㄹ. 동사>접미사: 控(kòng)

4.1.1. 형용사>접두사

24) CNNIC(中國互聯網絡信息中心)에서 2012년 7월 19일에 발표한 『第30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제30차 중국 인터넷 발전 상황 통계 보고서)』에서 참조하였다.

중국어 통신 언어에서 형용사로 쓰이던 것이 어근을 취해서 파생어를 만드는 접두사처럼 쓰이고 있는 예로는 ‘微’를 들 수 있다. ‘微’는 원래 ‘작다’, ‘적다’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이는데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의나 ‘짧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이고 있다. ‘微’의 문법적 기능이 바뀌는 현상에 대하여 張佳(2011)에서는 통신 언어에서 ‘微’가 접두사와 비슷한 준접두사로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微’의 문법화의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微’의 사전적 정의를 보기로 한다.

(53) ㄱ. 微, 小也(미, 작다). -- 《廣雅·釋詁二》

예. 名微而衆寡(이름의 인지도가 낮고 뒤에 따르는 사람도 없다). -- 《三國志·諸葛亮傳(삼국지·제갈량전)》

細微, 輕微, 微小, 微型.

ㄴ. 적다. 예. 稍微, 微笑.

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微’는 원래 어근으로서 자립 형태소이며 한 단어의 모든 위치에 자유롭게 분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 서양 과학 기술과 전자 제품과 관련된 접두사 ‘micro-’를 비롯한 용어를 번역할 때 한자 ‘微’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micro-computer’를 한국에서는 영어 ‘computer’를 음역해서 ‘컴퓨터’로 표기하지만 중국에서는 의역 방식으로 ‘微機²⁵⁾’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微’가 ‘작다, 미소하다, 희미하다’ 등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2009년 8월에 ‘microblog’인 ‘新浪微博(sina-microblog)’가 타남에 따라서 ‘微’가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중국어 통신 언어에서 보이는 ‘微’와 관련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4) 微机, 微電腦, 微電子.

(55) 微博客, 微小說, 微美食, 微漫畫, 微數據, 微收藏, 微盤, 微信群, 微吧.

(56) ㄱ. 微博校園, 微博簡歷, 微博生活, 微博時代, 微博愛情, 微博網民, 微博管理員.

25) ‘微机’는 작은 기계라는 뜻이다.

- ㄱ'. 微校, 微簡歷, 微生活, 微時代, 微愛情, 微信, 微民, 微管.
- ㄴ. 微博招聘, 微博採訪, 微博評論,
- ㄴ'. 微招聘, 微訪, 微評,

(57) 微喜劇, 微雜誌, 微視頻, 微笑話, 微電影, 微日記, 微表情, 微新聞.

위의 예들 가운데, (54)은 서양 과학 기술 전용 명사를 번역할 때 ‘微’가 쓰이는 것이고, (55)은 마이크로블로그가 나타난 후에 마이크로블로그에서 만드는 각종 어플(application)의 명칭이다. (56ㄱ, ㄴ)은 마이크로블로그와 관한 신조어이며, (56ㄱ', ㄴ')은 ‘微博’가 줄어져 ‘微’로 쓰이는 예이다. (57)은 마이크로블로그와 상관없이 ‘微’가 범화된 의미 ‘농축된, 짧은, 간략한’의 뜻으로 쓰이는 예이다.

위의 예들을 통하여 ‘微’는 다음과 같은 문법적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다. 첫째, 구조에 있어서 명사나 동사 중심어와 결합하여 파생어가 되며 접두사처럼 어두 위치에만 처한다. 둘째, 기능에 있어서 ‘微-’뒤에 어떤 성분이 결합하더라도 ‘微X’가 명사 성격을 나타내며 ‘微’가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보인다. 셋째, 인터넷에서 새로 나타나는 사물이 무엇이든지 [짧다]의 의미를 첨가하려면 앞에다가 ‘微’를 붙여서 신어를 만들 수 있다. ‘微’가 상당한 생산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의미에 있어서는 원래의 ‘작다, 적다’의 의미에서 ‘작은 블로그’, 더 나아가 ‘짧고 간단하다’, ‘간략하다’의 의미로 범화되었다. 이러한 기능을 비추어 보면 ‘微’가 접두사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微’가 아직 ‘작다’는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범화되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인 접두사로 볼 수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微’는 ‘작다, 적다’의 의미에서 ‘마이크로블로그의’ 의미까지, 더 나아가 ‘농축된, 짧은’이란 의미로 범화되었으며, 중간 범주에 속하는 형용사에서 소범주에 속하는 접두사로 쓰임으로써 ‘형용사>접두사’의 문법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1.2. 개사>접두사

조사로 쓰이는 것이 문법화하는 현상이 흔하지 않지만 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는 예로 ‘被’를 들 수 있다. ‘被’는 원래 피동문에서 동사 앞에 놓이고 당할 동작을 이끄는 조사로 쓰이지만 이제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로 쓰이고 있다.

‘被’는 2008년부터 유행되고 ‘2009漢語第一字(2009년을 대표하는 글자)’로 뽑혔다²⁶⁾. 彭咏梅(2010)에서는 ‘被X’가 새로운 피동 구조라고 하였고, 何洪峰·彭吉軍(2010)에서는 ‘被X’의 문법, 의미, 응용의 관점에서 연구하여, ‘被’를 유접두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사로 쓰이다가 접두사로 변화되는 문법화를 겪고 있는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통신 언어에서 관찰된 ‘被X’류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58) ㄱ. 被人肉, 被艾滋, 被紅娘, 被高鐵, 被小康, 被內需, 被中考.
 ㄴ. 被自殺, 被就業, 被捐款, 被自願, 被全勤, 被代表, 被奪冠, 被增長, 被漲薪.
 ㄷ. 被開心, 被幸福, 被繁榮, 被和諧, 被优秀, 被寂寞, 被健康.

위의 예는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被X’류 어휘이다. (58ㄱ)은 ‘X’가 명사를 취하는 예이고, (58ㄴ)은 동사를 취하는 예이며, (58ㄷ)은 형용사를 취하는 예이다. ‘被’가 이 어휘들 중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被’의 사전적 정의를 볼 필요가 있다.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被’는 원래 피동문에서 다음과 같은 통사적 특징 및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다.

- (59) ㄱ. (개사)동사 앞에다가 붙여서 동사와 같이 피동문에서 피동 의미를 나타낸다.
 妝成每被秋娘妒。——唐·白居易《琵琶行(并序)》
 幸借天降大雨,房屋未被火燒。——《廣州軍務記》
 ㄴ. (개사)피동문에서 동작을 하는 대상 앞에 위치하여 동작의 주체자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주어(수사자)+被+명사(동작의 주체자)+동사’구조로 쓰인다.

26) 중국 안휘(安徽)성의 이국복(李國福)이란 사람이 감옥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 조사 결과는 자살이라고 했더니 사자의 가족이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이 비정상적인 사건을 ‘被自殺’이라고 불렀다. 즉 자살동기가 없는 사람이 원인 불명한 사건으로 인해 죽고, 조사 기관에서 믿을 만하지 못한 자살 결론을 내렸다는 사건을 가리킨다.

老師被學生打了。

이러한 사건의 정의에 따르면 ‘被’는 뒤에 동사를 취하여 당사자가 당할 동작을 이끄는 조동사로 쓰이거나, 명사를 취하여 피동문에서 ‘동작의 주체자’을 이끄는 개사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58)에서 보인 ‘被’가 조동사에서 온 것인가 개사에서 온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시 (58)의 예를 보면, (58ㄱ) 중에 ‘被人肉’은 ‘철저히 인체 추격 당했음’, ‘被艾滋’는 ‘에이즈에 걸렸다는 지적을 당했음’ 등 의미를 나타내므로 결국 ‘被’가 ‘어떤 동작을 당했다’는 조동사처럼 피동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58ㄴ)은 말할 것도 없이 동사를 취하여 조동사처럼 피동의 기능을 하고 있다. (58ㄷ)에서 ‘被開心’, ‘被幸福’ 등은 형용사를 취하지만 각각 ‘즐겁지 않되 즐겁다고 하는 얘기를 당했음’,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하다는 평가를 당했음’을 나타내므로 조동사처럼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미는 실제적인 동작을 당하기보다는 ‘진실과 어긋나는 평가, 존재하지 않는 행동 등을 억지로 당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8)의 예문에서 ‘被’는 항상 고정된 어두 위치에 있으며, 동사와 형용사 등을 취하여 ‘被X’류 어휘들을 생산적으로 만들고 있다. ‘被’는 ‘진실과 다른 평가, 존재하지 않는 행동 억지로 당하다’는 의미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형적인 접두사로 볼 수 없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被’는 전형적인 접두사가 아니지만 접두사처럼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被’가 조동사에서 접두사로 변화하는 문법화를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1.3. 명사>접미사

독립적인 한자가 의존성을 획득하여 접미사처럼 의미와 형태적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명사>접미사’의 문법화를 하고 있는 현상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門(mén)’, ‘男(nán)’, ‘女(nǚ)’, ‘哥(gē)’, ‘姐(jiě)’, ‘叔(shū)’, ‘嫂(sǎo)’, ‘帝(dì)’,

‘客(kè)’, ‘奴(nú)’, ‘族(zú)’ 등이 있다.

4.1.3.1. 門(mén)

‘門’은 사전에서 ‘출입국’, ‘종교나 학술 사상의 과’ 등 뜻으로 쓰이는 명사라고 정의돼 있다. 그러나 이 단순한 ‘門’은 통신 언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접미사의 역할로 변하고 있다. 우선 통신 언어로서의 ‘門’의 사용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60) ㄱ. 정치: 水門, 伊朗門, 戰俘門, 拉鏈門, 旅行門, 檔案門, 特工門, 情報門.
ㄴ. 오락 및 경제: 艷照門, 宿舍門, 獸獸門, 質量門, 范跑門, 解說門, 臟話門.
ㄷ. 일반 사고: 天線門, 電池門, 掉漆門, 超女門, 改制門.

위의 예는 통신 환경에서 만들어진 ‘門’과 관련되는 어휘, 즉 ‘X門’류 어휘들이다. (60ㄱ)은 정치권의 추문(丑聞)을 나타내는 예이고, (60ㄴ)은 오락 및 경제 분야에서 나타난 부정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며, (60ㄷ)은 역시 일반 부정적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門’이 정치적 추문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은 미국 닉슨 대통령에 관한 ‘watergate’ 사건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의역 방식대로 (60ㄱ)의 ‘水門²⁷⁾’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군이 포로를 박대하는 사건’을 가리키는 ‘戰俘門’, ‘불량 사진이 노출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艷照門’, 더불어 ‘iphone 신제품이 안테나 수신 불량 사건’과 ‘배터리 대기 시간 줄임 사건’을 가리키는 ‘天線門, 電池門’ 등이 생겼다. 이런 과정과 함께 ‘門’의 의미도 ‘정치적 추문’에서 ‘일반 부정적 사건’ 뜻으로 범화되었다.

(60)에서 볼 수 있듯이 ‘門’이 ‘X門’류 어휘의 어말 위치에 있고 고정된 조어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X’는 ‘宿舍(기숙사)’와 같은 명사, ‘解說(해설하다)’와

27) ‘watergate’를 나누어서 ‘water’는 ‘水’로 번역하고 ‘gate’는 ‘門’으로 번역하였다.

같은 동사 등을 취할 수 있는데, ‘X門’류 어휘는 명사로서 ‘어떤 부정적 사건’을 나타냈다는 것을 보인다. 즉, ‘門’이 접미사처럼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門’이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부정적 사건이 일어나면 ‘門’을 붙을 수 있어서 새 어휘들이 생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門’은 일반 명사로 쓰이다가 통신 언어에서 의존성을 획득하여 ‘어떤 부정적 사건’의 뜻으로 접미사처럼 기능하게 됨으로써 ‘명사>접미사’의 문법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1.3.2. 男(nán)

한국어 통신 언어에서 ‘남’이 활발하게 사용되는 현상과 같이 한자 ‘男’도 중국어 통신 언어에서 상당히 많이 출현하였다. ‘男’은 ‘남’처럼 접미사의 기능을 갖게 되며 문법화의 경로를 밟고 있는 것이다.

‘男’은 사전에서 ‘남성, 남자’, ‘남성의’ 또한 ‘아들’이란 뜻으로 정의되고 있다. 자유 어근으로서 ‘男性, 男人, 美男, 男孩’처럼 어두나 어말 위치에 붙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男’이 고정된 어말 위치에 놓인 ‘X男’류 어휘가 많이 나타났다. 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1) ㄱ. 剩男, 宅男, 型男男.

肌肉男, 醬油男, 拇指男, 鳳凰男, 玩具男, 小資男, 氣質男, 萎縮男, 吊絲男.
皮男, 草莓男, 山東男, 无錫男, 宝馬男.

ㄴ. 食草男, 朗誦男, 隆樓男, 背妻男, 暈机男, 討薪男, 虐嬰男.

ㄷ. 直男, 花心男, 冷酷男, 猥褻男, 猥瑣男, 風流男, 悶騷男, 亞熟男, 牛奮男, 好色男, 健美男, 聰明男.

ㄹ. 經濟适用男, 大肘子男, 想入非非男, 玫瑰左手男.

(61)에서 보이는 용례들 중에 (61ㄱ)은 ‘男’이 명사와 결합하는 것이고 (61ㄴ)은 동사를 취하는 예이고, (61ㄷ)은 형용사를 취하는 것이며, (61ㄹ)은 다음절 용례이

다.

다음에 음절구조와 ‘X男’ 구조의 파생 효과를 살펴보고 ‘-男’이 준접미사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위 (61)에서 보인 바와 같이 ‘X男’ 구조에 있어서 ‘X’는 2음절과 3음절, 심지어 다음절을 취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새로 생긴 통신 언어로서의 ‘X男’ 중에 3음절 구조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X男’ 중에서 ‘X’가 명사든 동사든 형용사든 관계없이 ‘X男’이 명사가 된다. 이는 ‘X男’ 구조 중에 ‘男’이 중심어로서 수식을 받고 ‘한 가지 특성을 가지는 남성이다’는 의미를 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男’이 가지는 품사를 바꾸는 문법 기능을 알 수 있다.

‘X’가 나타내는 의미를 보면 주로 ‘외모, 특징, 평가, 행동’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모일 경우에 예를 들면 (61ㄱ)에서 ‘肌肉男’은 근육이 발달되고 건강한 몸을 가진 남자를 가리킨다. (61ㄴ) 중에서 ‘食草男’은 채식주의자의 다른 말로서 야채만 먹는 남자를 가리킨다. 평가를 표하는 예를 보면 (61ㄷ) 중에 ‘經濟適用男’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멋진 외모가 없으나 열심히 일하며 결혼할 대상이 될 만한 남자를 나타낸다. (61)의 예문들의 의미 자질을 분석해 보면, [+X, +男], 즉 [+외모, +특징, +평가, +행동, +남자]로 표시할 수 있다. ‘男’이 어원 의미 [남성]에서 벗어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男’이 ‘남자, 남성’이란 의미가 완전히 범화되지 못하는 점에서 전형적인 접미사라고 할 수 없지만 접미사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명사>접미사’로 문법화 진행 중인 모습을 보인다.

4.1.3.3. 女(nǚ)

주지하는 대로 명사 ‘女’는 ‘여성, 여자’의 뜻으로 쓰이는데 오늘날에 ‘어떤 특징을 가지거나 어떤 행동을 한 여자’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처럼 쓰이고 있다.

‘女’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62) ㄱ. 남성과 상대된 여성. 예. 女人, 女孩, 女人, 婦女, 美女, 少女.
 ㄴ. 딸. 예. 女兒, 兒女.

이러한 사전적 정의를 통해 현대 중국어에서 ‘女’는 독립적인 자립 형태소로서 조어 능력이 강하고 단어의 어두나 어말 위치에 분포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女’가 최근 들어 ‘X女’ 구조로써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그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3) ㄱ. 宅女, 森女.
干物女, 魚干女, 香菇女, 普相女, 孔雀女, 吊絲女, 小資女, 別克女, 雅閣女, 三高女, 黃金女,
 ㄴ. 晒女, 打女.
拜金女, 虐猫女, 肉食女, 敗犬女, 潤物女.
 ㄷ. 單女, 潮女, 沒女, 熟女, 腐女, 嫩女, 鮮女, 剩女, 萌女, 超女.
輕熟女, 中嫩女.
 ㄹ. 三不女, 无齡美女, 學術超女, 味道美女, 簡易方便女, 樂活女.

위의 예들 가운데 (63ㄱ)은 명사와 결합하는 것이고, (63ㄴ)은 앞에서 동사를 취하는 것이며, (63ㄷ)은 형용사를 취하는 것이며, (63ㄹ)은 단어가 아니고 구와 결합하는 것이다.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가 ‘女’와 결합한 다음에 ‘X女’ 구조가 명사구가 된다. 음절 구조를 보면 ‘女’는 단음절 한자와 결합해서 2음절 단어가 된다. 이런 구조는 현대 중국어 2음절 단어가 많다는 경향과 부합된다. 뿐만 아니라 2음절 어휘와 결합해서 3음절 단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통신 언어의 용례 중에 3음절 단어의 비율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63)의 예문을 통해서 ‘女’는 조어 위치에 있어서 항상 어말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말 위치에 놓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파생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고유 명사 중에 ‘X’가 단순한 직업이나 성별을 나타내는 데서 ‘외모, 특징, 평가, 특별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보면 ‘女’가 접미사처럼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X女’중에서 ‘女’가 자립 형태소에서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

와 결합할 수 있는 의존형태소가 되며, 주범주에 속하는 명사에서 소범주에 속하는 접미사로 변화하는 문법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1.3.4. 哥(gē)

‘명사>접미사’의 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예로는 ‘哥’를 들 수 있다. 일반 명사로 쓰이던 ‘哥’는 ‘어떤 외모, 특징, 평가, 행동 등을 지니는 남자’라는 뜻을 더하여 주는 접미사처럼 쓰이고 있다.

‘哥’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64) ㄴ. ‘兄(형)’와 의미가 같다. 같은 항렬의 동족과 친척 중 나이가 많은 남자. 예. 大哥, 二哥, 哥嫂.
 ㄷ. 자기보다 나이 많거나 비슷한 남자에 대한 존칭이나 애칭. 예. 張大哥, 李大哥, 哥們.
 ㄹ. 남편에 대한 애칭. 예. 送哥參軍.
 ㄹ. 인터넷에서 제1인칭 대명사. 예. ‘不要迷戀哥,哥只是个傳說’(‘[百度百科](#)’에 따르면 2009 년부터 생긴 통신 언어라고 한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 중국어에서 ‘哥’는 일반적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같은 항렬의 형에 대한 호칭이나, 혈연관계가 없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 대한 존칭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통신 언어에서 ‘1인칭 대명사’로 자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哥’는 통신 언어에서 ‘1인칭 대명사’로서의 용법 외에도 ‘X哥’ 형식의 또 다른 용법을 보인다. 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5) ㄱ. 棉襖哥, 數學哥, 熨斗哥, 蟾蜍哥, 饅頭哥, 異物哥, 窩居哥, 快遞哥, 財情哥, 面罩哥, 三輪哥, 豬肉哥, 體操哥.
 ㄴ. 看房哥, 咆哮哥, 鈎哥, 劈腿哥, 折騰哥, 奔跑哥.
 ㄷ. 犀利哥, 齊全哥, 妖嬈哥, 牛B哥, 淡定哥, 孝順哥.

ㄹ. 一哥, 7哥.

위의 예 가운데, (65ㄱ)은 ‘X’가 명사를 취하여 ‘哥’와 결합된 것이고, (65ㄴ)은 동사를 취하여 ‘哥’와 결합된 것이며, (65ㄷ)은 형용사를 취하여 ‘哥’와 결합된 것이다. (65ㄹ)은 위와 달리 ‘X’가 숫자를 취하여 ‘哥’와 결합하여 만든 단어이다. ‘哥’가 어말 위치에만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처럼 ‘哥’와 결합하는 성분이 명사든 동사든 형용사든 수사든 결합된 후에 ‘X哥’ 구조는 명사가 된다. 앞에서 ‘哥’의 사전 의미를 밝힌 대로 이들 용례들은 성씨나 이름과 결합하는 일반적인 용법이 아님을 볼 수 있다.

(65ㄱ)에서 ‘棉襖哥’는 ‘일년 내내 파카 입고 다니는 어떤 남자’를 가리키고, ‘饅頭哥’는 ‘유명한 영화배우처럼 생겼는데 만두를 팔고 있는 어떤 남자’를 가리킨다. (65ㄱ)의 다른 예들도 ‘어떤 직업에 종사하거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특별한 행동을 한 남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각각 어떤 인터넷 이슈와 대응한다. (65ㄴ)의 예 가운데 ‘看房哥’는 ‘아파트 구매하기 위하여 하룻동안 백여 개의 아파트를 구경한 남자’를 가리키듯이 놀라운 행동을 한 남자를 지칭하며, (65ㄷ)의 ‘犀利哥’는 ‘옷차림이 초라하지만 눈빛이 날카롭고 영화배우 못지않게 멋진 남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65ㄷ)의 다른 예도 형용사가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는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65ㄹ)은 나타나는 용례가 별로 없지만 ‘一哥’는 어떤 분야에서 수석이 될 만한 남자를 가리키고 ‘7哥’는 어떤 핸드폰 브랜드 (7G) 시리즈 제품을 나타내는 것이다.²⁸⁾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哥’는 더 이상 [+남성, +연장자] 나 [+남성, +연장자+ 친족이나 친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남성, +어떤 직업에 종사함]이나 [+남성, +젊은이, +특별한 행동이나 특징을 지님] 등으로 범화되었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哥’가 일반 명사로서나 아니라 접미사처럼 쓰이게 됨으로써 ‘명사>접미사’로의 문법화를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8) (65ㄹ)과 같이 특정한 물건을 가리키는 예가 많이 없으나 젊은이들이 특정한 물건에 감정을 부여하고 사람처럼 애칭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핸드폰이나 카메라, 컴퓨터, 애완동물, 장난감 등 물건이 그 다수이다.

4.1.3.5. 姐(j i ě)

‘姐’는 ‘哥’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명사>접미사’의 문법화를 겪고 있다. 사전에 따르면 ‘姐’는 원래 ‘같은 항렬의 친척 중에 나이가 많은 여자’, 혹은 ‘혈연관계는 없지만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여자에 대한 존칭’의 뜻으로 명사로 쓰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다음과 같은 용례가 생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66) ㄱ. 學歷姐, 大炮姐, 炮炮姐, 情趣姐.
 ㄴ. 流淚姐, 暈倒姐, 失控姐, 提問姐.
 ㄷ. 洒脱姐, 富姐, 肥姐, 肥肥姐.
 ㄹ. 一姐.

(66)는 ‘姐’가 통신 언어로서 보이는 예이다. (66ㄱ)은 ‘姐’와 명사가 결합한 예이고, (66ㄴ)은 ‘姐’가 동사와 결합한 예이며, (66ㄷ)은 ‘姐’가 형용사와 결합한 예이다. (66ㄹ)은 숫자와 결합한 예이다.

(66ㄱ)의 ‘學歷姐’는 ‘16년 동안 8개 고등 학력 학위를 취득한 어떤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66ㄱ)은 해당 명사가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는 여자를 가리킨다. (66ㄴ) 중 ‘流淚姐’는 ‘수상식에서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66ㄴ)의 예문은 역시 ‘놀라운 행동을 하는 여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66ㄹ)의 ‘一姐’는 ‘어떤 분야에 최고를 차지하는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66)의 예문을 통해 ‘姐’가 몇 가지 문법적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어말 위치에 있다. 중심어로서 앞의 성분의 수식을 받는다. 둘째, ‘姐’와 결합하는 어휘가 생산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명사이든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수사이든지 ‘姐’와 결합해서 ‘X姐’류 어휘를 만든다. 셋째, 이러한 ‘X姐’류 어휘들의 품사는 명사이다. 즉 중심어로서의 ‘姐’가 전체 단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 넷째, ‘姐’는 ‘여자’란 의미에서 ‘어떤 특징을 지니는 여자’의 뜻을 더하는 의미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여자]라는 의미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다. 이러한 문법적 특징에 비추어 ‘姐’가 접미사처럼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姐’가 자립 명사로 쓰이다가 의존성이 있는 준접미사로 쓰이게 됨으로써 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1.3.6. 叔(s h ū)

명사로 쓰이던 ‘叔’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 기혼 남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변하면서 접미사처럼 쓰이게 된다. 아래의 (69)는 ‘叔’의 사전적 정의이고, (69)은 통신 언어에서 ‘叔’이 쓰이는 어휘의 예이다.

(67) 가. (명사로서)숙부, 작은 아버지, 삼촌을 가리킴. 예. 二叔, 三叔.

나. (명사로서)아저씨. 아버지와 항렬이 같으면서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 친척을 부르는 말. 예. 叔父, 大叔.

다. (명사로서)아저씨.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혈연관계가 없는 남자에 대한 존칭. 예. 張叔, 李叔, 祥叔.

(68) 表叔, 板車叔, 鳥叔, 貓叔, 房叔, 車叔.

(67)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叔’은 ‘혈연관계가 있는 숙부, 작은 아버지, 삼촌’을 뜻하거나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한 존칭’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자립성을 지닌 명사로 쓰이되 일반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 쓰일 때 주로 성씨나 이름 뒤에 붙는 것을 알 수 있다.

(68)의 예는 기존 용법과 달리 ‘叔’에 일반 명사인 ‘表, 板車, 鳥, 貓’가 결합해서 만든 것이다. ‘表叔’은 ‘비싼 시계를 자주 바꾸는 어떤 공무원 아저씨’를 가리키는 것이고, ‘板車叔’은 ‘지갑을 주웠는데 간신히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짐마차를 운전하는 아저씨’를 가리키는 것이며, ‘鳥叔’은 ‘유명한 가수 싸이’를 가리키는 것이며, ‘貓叔²⁹⁾’은 일본의 어떤 유명한 고양이를 말하는 것이다.

29) (일본의 어떤 시골에서 사는 고양이이다. 머리가 엄청 크고 자주 눈살을 찌푸리거나 선글라스를 끼는 것을 좋아한다. 자주 바구니에서 잠자기 때문에 일본 이름이 ‘바구니 고양이’라고 한다. 연령

(68)의 예에서 보이는 ‘叔’은 성씨나 이름에 붙인 존칭이 아니라 일반 명사를 취해서 해당 명사가 드러내는 특징을 가지는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어말 위치에 있으며 의미가 범화된다는 점에서 보면 접미사처럼 기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X叔’류 어휘가 다른 통신 언어만큼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것 같다. 이는 ‘叔’이 나타낼 대상이 적어도 나이가 40-50 이상이 되어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표시할 대상이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叔’이 접미사처럼 기능함으로써 ‘명사>접미사’의 문법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1.3.7. 嫂(sǎo)

일반 명사로 쓰이던 ‘嫂’는 ‘어떤 특징을 가지거나 어떤 일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이라는 뜻의 접미사로 쓰임으로써 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선 ‘嫂’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69) ㄱ. (명사)형수를 가리킨다. 예. 嫂子, 兄嫂.

ㄴ. (명사)친구의 아내에 대한 통칭. 예. 大嫂, 嫂夫人.

ㄷ. (명사)아주머니, 나이 그리 많지 않은 기혼 여성에 대한 호칭. 예. 王嫂, 李嫂, 祥林嫂.

(70) 月嫂, 村嫂, 房嫂, 礦嫂, 外來嫂, 宴會嫂.

(69)은 ‘嫂’의 사전적 정의이다. 이를 통하여 ‘嫂’가 ‘형수나 친구의 아내에 대한 통칭’의 뜻으로 쓰일 때 조어 위치의 제한이 없는 어근으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기혼 여성을 부를 때 주로 성씨나 이름 뒤에 붙여 있는 것을 보인다.

(70)은 ‘嫂’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혼 여성’의 뜻으로 통신 언어에서 쓰이고 있다. ‘月嫂’는 ‘한 달 동안 산후조리해 주는 아주머니’를 뜻하며 ‘村嫂’는 ‘시골에

이 9살인데 성인 50살 정도 되니 중국 인터넷에서 ‘고양이 아저씨’라고 부른다.

서 사는 아주머니’를 뜻하고, ‘房嫂’는 ‘아파트를 파는 아주머니’를 말하는 것이고, ‘礦嫂’는 ‘석탄 광산에서 사는 아주머니’를 말하는 것이다. ‘外來嫂’는 ‘토박이 아닌 타지에서 온 아주머니’를 뜻하고, ‘宴會嫂’는 ‘호텔 연회(宴會)에서 서비스를 도와주는 아주머니’를 가리키는 것이다.

(70)에서 볼 수 있듯이 어근으로 쓰이던 ‘嫂’는 일반 명사를 취하고 고정된 어말 위치에 배치됨으로써 ‘X嫂’류 어휘를 만들었다. 여기의 ‘嫂’는 기혼 여성에 대한 존칭이 아니라 ‘어떤 일을 종사하거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혼 여성’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嫂’도 자립성 있는 명사에서 의존성을 획득하여 접미사로 발전하는 문법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4.1.3.8. 帝(dì)

‘帝’는 원래 ‘우주의 창조자와 주권자나 고대 나라의 최고 통치자’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어떤 한계를 넘어서 과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이고 있다.

‘帝’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尹睿·王瑩(2012)가 북경대학교 현대한어 자료고에 수록된 ‘X帝’류 어휘들을 통계 분석함으로써 ‘帝’가 유접미사의 판단 기준과 부합하여 유(類)접미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帝’의 문법화 현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71)은 ‘帝’의 사전적 정의이고, (72)은 ‘X帝’류 어휘 일부의 예이다.

- (71) ㄱ. (명사)우주의 창조자와 주권자. 예. 上帝.
 ㄴ. (명사)고대 나라의 최고 통치자. 예. 皇帝.

- (72) ㄱ. 章魚帝, 道德帝, 表情帝, 体操帝, 賀歲帝, 真相帝, 龍套帝, 秋衣帝, 杯具帝, 山寨帝, 預言帝, 文言帝, 技術帝, 文學帝, 物理帝, 演講帝, 內涵帝
 ㄴ. 听証帝, 咆哮帝, 升職帝, 不倒帝, 數錢帝, 洗面帝, 練攤帝, 撕票帝, 抱怨帝, 炒作帝, 預測帝, 落泪帝, 理財帝, 洗碗帝, 計算帝.

ㄷ. 激動帝, 猥瑣帝, 邈邈帝, 最差帝.

위의 (71)에서 보인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帝’는 본래 ‘우주의 최고 통치자’나 ‘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뜻의 자립 명사로 쓰임을 알 수 있다. (72)의 예에서 (72ㄱ)은 ‘X’가 명사일 때 만들어진 예이고, (72ㄴ)은 ‘X’가 동사일 때 결합된 예이며, (72ㄷ)은 ‘X’가 형용사일 때 결합된 예이다.

제시하는 예들 가운데 몇 가지를 설명하면, (72ㄱ)의 ‘章魚帝’는 ‘월드컵 때 축구 경기 결과를 제대로 맞추는 예언 문어 파울’을 말하는 것이고, ‘体操帝’는 ‘자동차에 치이고도 공중에서 세 바퀴 돌아서 죽지 않은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72ㄴ)의 ‘听証帝’는 ‘19번에 공청회에 참석해서 물가를 올리는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咆哮帝’는 ‘비행기의 출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미친듯이 외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72ㄷ)의 ‘猥瑣帝’는 ‘TV 프로그램에서 MC와 활동할 때 열정이 넘쳐서 염치없는 행동과 말을 한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帝’가 ‘최고의 통치자, 주권자’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보통을 넘어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 또한 ‘일정한 한계를 초월해서 과대한 행동을 한 사람³⁰⁾’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帝’가 아직도 ‘어떤 면에서 권위 있는 높은 위치’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런 사용 양상은 ‘帝’의 의미가 실질 의미에서 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72)의 예를 통하여 ‘帝’가 어말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X’가 사람의 행동이나 특징에 따라서 그에 걸맞은 단어로 표시되며, ‘帝’와 결합해서 많은 ‘X帝’류 어휘가 생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X’가 명사, 동사, 형용사를 취해서 만드는 ‘X帝’류 어휘들이 전부 다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帝’의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보이기도 한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帝’가 전형적인 접미사가

30) 尹睿·王莹(2012)에서는 의미성분 분석함으로써 원래의 ‘帝’가 [+男性(남성)][+至尊(지존)][+專制(전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통신 언어로서의 ‘帝’가 긍정적인 [+男性(남성)][+權威(권위)][+杰出(걸출)][+존경]의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男性(남성)][+초과]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옛날 시대에 통치자가 남자밖에 없기 때문에 ‘帝’가 [+남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통신 언어에서 범화된 ‘帝’의 용례 중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도 출현하였다. 예를 들어서 ‘听証帝’는 처음에 어떤 할머니를 가리킨 것이다.

아니지만 접미사처럼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帝’가 자립성 있는 명사로 쓰이다가 의존성을 얻어서 접미사로 변하는 문법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1.3.9. 客(kè)

명사 ‘客’은 ‘손님’, ‘타지에서 체류하는 사람’, ‘서비스를 받는 대상’, ‘어떤 직업이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지니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로 쓰이고 있다.

먼저 ‘客’의 사전적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73) ㄱ. (명사)외부에서 온 손님. 예. 客人, 賓客, 會客, 不速之客.
 ㄴ. (명사)외출하거나 타지에서 체류하는 사람. 예. 旅客.
 ㄷ. (명사)서비스업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 예. 顧客, 乘客.
 ㄹ. (명사)어떤 직업이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예. 說客, 政客, 俠客.

이러한 사전의 정의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현대 중국어에서 ‘客’은 명사로서 [+손님, +존칭] 아니면 [+활동에 종사함] 등 의미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客’이 자립성이 있어서 어휘의 어두와 어말 위치에 분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신 언어로서 ‘客’은 명사로서 활발하게 쓰인 한편, 다른 용법이 나타남으로써 ‘X客’류 어휘가 많이 생겼다. ‘X客’의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74) ㄱ. 黑客, 博客, 奇客, 閃客, 紅客, 砍客, 酷客, 維客.
 ㄴ. 紐約客, 北京客, 山東客, 中國客.
 (75) ㄱ. 視客, 財客.
 背包客, 山野客, 文字客, 午夜客, 地鐵客.
 ㄴ. 拼客, 晒客, 拍客, 試客.
 ㄷ. 愛音客, 獨行客, 豪賭客, 嘮叨客, 搜索客, 短租客.

ㄷ. 綠客, 神秘客.

위의 예문들 중에 (74)은 ‘客’이 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영문 용어와 잡지 영문 이름을 음역해서 처음으로 통신 언어로서 나타나는 예이고, (75)은 ‘客’의 생산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예이다. (74ㄱ)에서 보이는 ‘黑客, 博客, 奇客, 閃客’ 등은 각각 ‘hacker, blogger, geek, flash’에서 온 말이다. 한편으로, 영어의 ‘k’, ‘g’가 중국어 ‘客’과 발음이 비슷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영어 단어는 인터넷과 인터넷 기술이 능숙한 사람을 나타내는 데서 ‘客’의 어원 의미 ‘어떤 활동을 종사하거나 특기를 가지는 사람’이란 의미와 비슷하기 때문에 ‘客’이 사용되었다(胡燦明 2012:51). 그러나 (74ㄴ)에서 보이는 ‘客’이 (74ㄱ)의 ‘客’과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何麗(2009:59)에 따르면 ‘紐約客’이 잡지 이름인 ‘New Yorker’에서 나오고, ‘客’의 ‘타지에서 체류하는 사람’이란 의미와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³¹⁾. 따라서 ‘北京客, 山東客’과 같이 각 성(省)³²⁾과 도시의 명칭 뒤에 ‘客’을 붙여서 ‘지명+客’ 구조가 생기게 되었다.

(75)의 예들은 ‘X客’을 모방해서 만든 어휘로서 (75ㄱ)은 ‘X’가 명사를 취하는 예이고, (75ㄴ)은 동사를 취하는 예이며, (75ㄷ)은 형용사를 취하는 예이다. 이들 단어들은 ‘背包客(가방을 메고 여행하는 사람), 山野客(산에서 사는 사람)’ 등과 같이 여가 생활을 나타내든지, ‘獨行客(혼자서 다니는 사람), 豪賭客(도박을 크게 하는 사람), 嘮叨客(잔소리가 심한 사람)’ 등과 같이 개인적 생활 습관이나 특징을 나타내든지 ‘X客’은 명사로 쓰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客’은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보인다. ‘客’의 조어 위치에 있어서 예문에서 보이듯이 ‘X’를 취하여 ‘X’ 뒤에만 붙을 수 있다. ‘客’이 애초 ‘黑客’와 ‘紐約客’에서 쓰인 다음 인터넷에서 유행을 추구하는 동기와 경제성 동기에 의하여 많은 ‘X客’ 단어들이 생기게 되니 이는 ‘-客’가 접미사처럼 생산성이 보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31) 1927년 미국 잡지 <<New Yorker>>가 출간하였다. 원래 의미는 ‘뉴욕 사람’이란 것이지만, 중국어로 번역할 때 ‘紐約客’로 하였다. 이는 뉴욕에서 사는 사람 대부분이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는 문제를 고려해서 또한 발음까지 잘 맞추기 위하여 ‘客’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32) 지역 행정 단위 중 하나이다.

‘客’의 의미 변화에 있어서 ‘손님’, ‘타지에서 체류하는 사람’, ‘어떤 활동을 종사하는 사람’ 등 원래 의미에서 (75ㄱ)의 ‘어떤 기술을 잘하는 사람’, (75ㄴ)의 ‘어떤 지역의 사람’, (75)의 ‘午夜客(한밤에 출몰하는 사람)’ 등처럼 ‘어떤 습관이나 행동을 가지는 사람’이란 의미까지 범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범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客’이 전형적인 접미사로 볼 수 없지만 의미, 기능, 통사적으로 접미사처럼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客’이 주범주에 속하는 자립 명사에서 소범주에 속하는 준접미사로 변화되며 이른바 문법화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4.1.3.10. 奴(nú)

원래 ‘죄인이나 노예’의 뜻으로 쓰이던 명사 ‘奴’가 의존성을 획득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노예와 같이 된다’의 뜻에 접미사처럼 쓰임으로써 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다. ‘奴’의 원래 의미와 문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76) ㄱ. (명사)죄인. 예. 奴,奴婢皆古之罪人也。 -- 《說文》
 ㄴ. (명사)노예. 예. 奴隸.
 ㄷ. (명사)여자가 자기에 대한 겸어(謙語). 예. 奴婢, 奴仆.

이러한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奴’는 원래 ‘죄인’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며, 성별과 관계없이 남녀 노예를 나타내기도 한다. 조어 위치에 있어 자립성이 있는 어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 언어에서 ‘奴’가 들어 있는 ‘X奴’류 어휘가 많이 출현하고 있는데 의미와 문법적 기능이 원래 ‘奴’와 다르다. 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77) ㄱ. 房奴, 卡奴, 孩奴, 車奴, 墓奴, 性奴.
 學位奴, 電腦奴.

ㄴ. 考奴, 教奴, 愛奴, 恨奴.
工作奴, 出國奴.

(77)는 ‘奴’에 관련되는 일부 어휘들을 분류해서 보인 것이다. (77ㄱ)은 ‘X’가 명사를 취한 예이고, (77ㄴ)은 ‘X’가 동사를 취한 예이다. (77ㄱ)에서 ‘房奴’는 ‘집을 산 다음에 할부금에 시달리는 사람이나 집을 사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는 사람’을 가리키고, ‘卡奴’는 ‘신용카드 할부금에 시달리는 사람’, ‘學位奴’는 ‘많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考奴’는 ‘끝임없이 각종 자격증 시험을 보는 학생’을 말하는 것이고, ‘出國奴’는 ‘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돈 모으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77)의 예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노예처럼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한 가지 어휘로 볼 수 있다. ‘奴’가 실질적인 ‘노예’의 의미에서 벗어나고 범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7)에서 보인 예들을 통하여 ‘奴’의 새로운 문법적 기능을 알 수 있다. 첫째, 어말 위치에만 있다. 중심어로서 어말 위치에 놓고 수식을 받는다. 둘째, 생산성이 있다. 명사를 취하는 예 가운데 ‘房奴’와 같은 2음절 단어가 있고, ‘學位奴’와 같은 3음절 단어도 있다. 동사를 취한 예 가운데 역시 단음절과 2음절 단어가 다 존재한다. ‘奴’와 결합할 수 있는 구성은 명사이든 동사이든 상관없이 쓰일 수 있다. 셋째,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다. 이러한 어휘들이 전부 다 ‘노예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문법적 기능을 토대로 ‘奴’는 접미사처럼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奴’는 여전히 어원 의미 ‘노예’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접미사로 보기는 힘들다.

이상에서 본 대로 원래 ‘노예’의 뜻으로 쓰이던 ‘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노예처럼 사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주범주에 속하는 명사에서 소범주에 속하는 접미사로 쓰임으로써 ‘명사>접미사’로의 문법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1.3.11. 族(zú)

‘族’은 원래 ‘친척’이나 ‘공통된 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공동체’ 등 뜻으로 자립 명사로 쓰이는데 ‘비슷한 사회 특징을 가지는 한 가지 사람’이란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로 쓰이고 있다.

‘族’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78) ㄱ. 친척. 예. 族規, 族長, 家族.

ㄴ. 같은 기원과 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공동체. 예. 種族.

ㄷ. 집단 생활을 하며 같은 혈연 관계를 가지는 무리. 예. 宗族, 氏族, 部族.

위의 사전적 정의를 통해 ‘族’은 혈연관계나 같은 유전 특징을 지니는 공동체를 뜻하는 자립 명사임을 알 수 있다. ‘族’은 어두와 어말에 분포될 수 있는 자립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族’은 어말 위치에만 놓이고 접미사처럼 쓰이는 용례를 많이 보인다. 그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9) ㄱ. 拇指族, 背包族, 草根族, 丁克族, 吊瓶族, 耳机族, 富人族, 私家車族, 信用卡族, 拼客族, 裸婚族, 暴走族.

ㄴ. 追星族, 隱婚族, 上班族, 快閃族, 考研族, 北漂族, 陪車族.

ㄷ. 无孩族, 月光族, 負債族, 時尚族.

ㄹ. soho族, iphone族.

(79ㄱ)은 ‘族’이 명사와 결합하는 예이며, (79ㄴ)은 동사와 결합하는 예이며, (79ㄷ)은 형용사나 상태를 나타내는 구와 결합하는 예이고, (79ㄹ)은 영어와 결합하는 예이다.

위의 예를 통하여, ‘族’은 접미사와 비슷한 문법적 기능을 보인다. 첫째는, ‘X族’류 단어의 어말 위치에만 놓인다. 둘째, ‘X’가 명사, 동사, 형용사, 영어를 막론하고 ‘X族’류 단어의 품사는 ‘族’에 달려 있으므로 ‘族’이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을 보인다. 셋째, ‘X族’류 단어 상당히 출현하고 있다. 한 가지 특징을 가지는 집단을 가리킬 때 해당 집단의 특징을 나타내는 성분 뒤에 ‘族’을 붙으면 된다. 이러한 기능에

비추어 ‘族’은 접미사처럼 쓰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族’은 ‘친척이나 같은 사회특징을 지니는 공동체’의 뜻의 명사에서 ‘같은 특징을 지니는 집단’의 뜻을 더하여 주는 접미사로 변화하는 문법화를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1.4. 동사>접미사

최근 들어 새로 출현한 중국어 통신 언어 가운데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또 다른 예로는 ‘控’을 들 수 있다. 앞의 ‘명사>접미사’에서 다룬 사례와 달리 ‘控’은 원래 동사로 쓰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화 과정에서 보이는 의미와 기능이 특징적이다. 동사 ‘控’은 원래 ‘통제하다, 제어하다’의 뜻으로 쓰이지만 ‘어떤 사물을 지극히 좋아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控’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控’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0) 나. (동사)제어하다, 통제한다. 예. 控制, 遙控 등.
- 기. (동사)고소한다, 죄악을 고발한다. 예. 控告, 控訴, 指控, 被控 등.
- 디. (동사)몸 또는 그 일부를 허공에 매달다거나 용기(容器) 따위를 거꾸로 세워서 쏟아내게 한다. 예. 控淨, 控一控 등.

위의 사전적 정의를 통하여 ‘控’은 동사로서 ‘조정하다’의 뜻을 나타내거나 ‘소송하다’, ‘고발하다’의 뜻을 나타내거나, ‘매달다’나 ‘거꾸로 세우다’의 뜻으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항에서 ‘사람이 무엇을 제어하는 데에 애쓴다’란 의미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控’이 통신 언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81) ㄱ.



Diana年年鸿运当头🌟👉👈 : 😄😄😄 微博控们走过路过别错过👉👈 打开链接来瞧瞧
👉👈 <http://t.cn/zj5CtiM>

今天02:39 来自iOS

转发 | 收藏 | 评论

ㄴ.



Miku_杭👉👈 : 上土壤肥力学的Osmond女老师毕业于康奈尔, 是个铃铛控, 平时都会
在手腕上系个小铃铛, 讲起课来叮叮玲玲的像只小猫。今天她竟然又挂了一副红色
的铃铛耳环, 是那种很有圣诞节气氛的样式。现在上起课来, 浑身上下都叮叮玲玲
的了。真的是很有意思.....

13分钟前 来自新浪微博

转发 | 收藏 | 评论

(82) ㄱ.



Kidult兔纸 : 难怪我一直控三星, 因为脸大 //@骑在长颈鹿上的涂小囡. 哈哈, 一
语中的! 🤔

ㄴ.



Norman__M : 苦苦等了差不多一年, 行尸走肉第三季终于开播了。配靓照一张。还
有几部一直关注的, 陆续也开播了, 又要开始控美剧了。爽啊!!!



위의 예들은 중국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의 대표로 들 수 있는 ‘新浪微博’에서 관찰된 예들로서 ‘控’이 두 가지 의미 기능을 보인다. (81ㄱ)의 ‘微博控’은 명사로서 ‘마이크로블로그를 지극히 좋아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글을 올리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81ㄴ)의 ‘鈴鐺控’은 ‘바울을 지극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82ㄱ)의 ‘控三星’은 ‘전자 제품 브랜드인 삼성의 제품을 좋아한다’는 말이고, ‘控美劇’은 ‘미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이다.

같은 ‘控’인데 어떻게 원래 용법과 서로 다른 새로운 용법이 생기게 되는가를 규명하려면 이들의 ‘控’의 유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82ㄱ)과 같이 ‘어떤 사물을 지극히 좋아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는 ‘控’을 ‘控₁’로, (82ㄴ)과 같이

‘지극히 좋아한다’의 뜻으로 쓰이는 ‘控’을 ‘控₂’로 표시하며, 어원 의미를 가지는 ‘控’을 ‘控₀’으로 표기한다.

<<百度百科>>와 曹春靜(2011)에 따르면 ‘控₁’은 일본어 ‘コン’를 음역해서 온 단어로서 ‘어떤 물건을 지극히 좋아하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³³⁾. 이렇게 번역하게 된 이유는 ‘어떤 물건에 빠지고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좋아한다’면 자기가 그 물건에 통제된다는 의미와 비슷하고, 게다가 ‘控’와 일본어 ‘コン’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曹春靜 2011:75). 따라서 네티즌들은 다양한 ‘控₁’류 단어를 만들게 되었다.

- (83) ㄱ. 顏控₁, 正太控₁, 蘿莉控₁, 大叔控₁
 ㄴ. 倩碧控₁, 手机控₁, 首飾控₁, 圍脖控₁, 小說控₁, 文具控₁, 苹果控₁, 香水控₁, 格子控₁, 數碼控₁, 蕾絲控₁, 制服控₁, 高跟鞋控₁.

(83ㄱ)의 예들은 애초 일본어를 음역하는 차원에서 생기는 통신 언어의 예이고, (83ㄴ)의 예들은 네티즌들이 ‘X控₁’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예들이다. 호기심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통신 언어 사용자들이 ‘X控₁’ 구조를 전파하게 되었다.

그러면 통신 언어로서 나타난 ‘控₂’가 어떻게 달리 쓰이는지를 다음과 예문을 통하여 본다.

- (84) ㄱ. 我已經控眼鏡控₂到發瘋了。
 ㄴ. 男人也要控₂皮草。
 ㄷ. 手机,我只控₂苹果。

(84ㄱ)은 ‘나는 안경을 미칠 정도로 좋아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84ㄴ)은 ‘남자도 피초(皮草)³⁴⁾를 지극히 좋아해야 된다’는 의미를 표현하며, (84ㄷ)은 ‘핸드폰은

33) 일본어 ‘コン’는 영어 ‘complex’를 앞부분 ‘com’만 잘라서 만든 음역 단어이지만 영어 ‘complex’와 의미가 다르다. ‘complex’의 여러 가지 의미에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라는 의미항을 보유하면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는 사람’이란 의미로 확대하였다고 한다.

34) ‘皮草’는 가죽이나 초본 식물의 줄기로 만드는 옷을 가리키는 범칭이다.

나는 애플 핸드폰만 좋아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본어를 음역해서 ‘控₁’을 사용하게 되고, 네티즌들이 ‘X控₁’ 구조를 조어 틀을 삼아 다양한 어휘를 만들었다. 그러나 ‘X控₁’ 구조는 ‘어떤 물건을 지극히 좋아하는 사람’만 가리키는데 이 행동과 잘 어울리는 중국어의 동사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네티즌들이 경제적 동기와 표기적 동기로 인해 ‘控₁’을 동사로 씌으로써 예문 (84) 중의 ‘控₂’를 쓰게 되었다. ‘控₂’는 ‘控’의 의미가 확대된 것으로서 품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문법화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예문 (83)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控₁’은 명사를 취하여 ‘X控₁’이 되었다. ‘X’가 명사이지만 ‘控₁’이 중심어로서 ‘X控₁’을 명사로 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X控₁’이 명사가 되었다. 그 다음에 ‘X控₁’ 중에 ‘控₁’의 위치가 오직 ‘X’ 뒤에만 쓰일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는 쓸 수 없다. ‘X控₁’의 유행으로 인해 ‘控₁’이 다양한 명사와 결합하는 생산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控₁’의 의미에 있어서 실질 의미인 ‘조정하다, 제어하다’ 등에서 ‘지극히 무엇을 좋아하는 한 가지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범화되었다. 즉 실질 의미가 추상화되었다.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控₁’은 접미사처럼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控₁’이 ‘동사>접미사’로의 문법화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중국어 통신언어의 역문법화

중국어 통신 언어의 역문법화는 ‘접미사>명사’와 ‘접두사>대명사’ 두 가지로 관찰되었다. 구체적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85) ㄱ. 접미사>명사: ‘-門(mén)’
 ㄴ. 형용사>대명사: 親(qīn)

4.2.1. 접미사>명사

‘접미사>명사’로의 역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는 예로는 ‘-門’을 들 수 있다. ‘門’은 명사에서 문법화를 경험함으로써 접미사로 변화하는 과정에 다시 독립성을 획득하면서 어휘적 지위로 되돌아가고 있다.

앞의 4.1. 절에서 중국어 통신 언어 ‘명사>접미사’의 문법화 현상을 다룰 때 ‘門’의 문법화 현상을 살펴보았는데 ‘門’이 일반 명사로 쓰이다가 통신 언어에서 전형적인 접미사로 볼 수는 없지만 접미사처럼 기능하는 준접미사로 쓰이게 되었으며, 의미에 있어 ‘실체의 문’의 뜻이 ‘정치권의 소문이나 일반 부정적인 사건’의 뜻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통신 언어로서의 ‘門’이 접미사로 변하는 과정에 또 다른 의미와 통사적 특징이 관찰되었다. 그 일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6) ㄱ.



周碧华-眼皮儿跳▼: #泼墨门#据《京华时报》报道, 前天, 纷纷扰扰已达半年的章子怡“泼墨门”关上了, 北京市朝阳法院不公开开庭审理此案, 涉嫌侵权的购物导报社当庭向章子怡出具道歉函, 双方达成和解协议。这是一起看似章子怡赢了的官司, 但从报道来看, 此官司暴露了一个重大疑点

ㄴ.



稳妥乖巧续哈哈: 都说上帝为你关上一扇门之后, 会为你打开一扇窗。上帝尤其眷顾你, 为你打开了优秀摄影艺术家之窗后, 又同时为你开启了一扇艳照门。。。

ㄷ.



火柴盒来了▼: 指责用户“不想把门关紧”, 脑子进水了? 暂且不说是“质量问题”, 但很显然是“客户服务”问题。这是公关失败的案例。西门子和蓝色光标, 改改思路吧! HP当年的315质量门就是前车之辄!

(86)은 ‘X門’류 어휘가 문장 속에서 형태적 모습을 보이는 예들이다. (86ㄱ)은 ‘泼墨門’이 동사 ‘關上’과 같이 쓰이는 예이고, (86ㄴ)은 ‘艳照門’이 동사 ‘打開’와 어울리는 것이며, (86ㄷ)은 ‘質量門’이 ‘關緊’과 같이 쓰는 예이다.

위의 예에서 나타난 ‘泼墨門’은 ‘여자 배우에게 먹물을 뿌렸다는 사건’, ‘艳照門’은

‘불량 사진이 노출되었다는 사건’, ‘質量門’은 ‘명품 핸드폰 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건’ 등 부정적인 이슈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들과 같이 쓰는 동사 ‘關上’, ‘打開’, ‘關緊’은 본래 열거나 닫는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의 ‘門’을 단순히 부정적 사건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하면 문장 관계에 있어 맞지 않는다. (86ㄱ)에서 동사 ‘關上’은 ‘비유적으로 여자 배우에게 먹물을 뿌리는 부정적 사건의 문’을 닫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86ㄴ, ㄷ)의 ‘門’이 ‘비유적으로 부정사건의 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문장의 뜻이 통한다.

張強(2010)에서는 ‘超女門’과 ‘艷照門’의 단어 가운데에다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的’을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門’이 앞부분과의 의존관계가 깨졌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門’이 더 이상 접미사처럼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며 실제적 문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접미사로 쓰이고 ‘정치 추문이나 일반 부정적 사건’의 뜻으로 하는 ‘門’이 실제적 문을 나타내는 ‘門’과 서로 작용하는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위와 같은 예문을 통해 ‘門’은 접미사로 변하는 과정에 다시 실제적 문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로 되돌아오고, 의미에 있어 추상적인 의미에서 구체적 의미로 변화되며, 역문법화를 겪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2.2. 형용사>대명사

형용사 ‘親’은 원래 ‘관계가 밀접한, 사이가 좋은’의 뜻으로 쓰였는데 통신 언어에서 2인칭 대명사로 ‘자기’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親’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親’의 사전적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87) ㄱ. (형용사)관계가 밀접하다, 사이가 좋다. 예. 親密, 親屬, 親愛的.
- ㄴ. (동사)사람이나 사물에 입맞추다. 예. 親吻.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親’은 ‘관계가 밀접한, 사이가 좋은’의 뜻에

형용사로 쓰이거나 ‘입맞추다’는 의미의 동사로 쓰인다.

최근 들어 ‘親’은 2인칭 대명사로 인터넷 쇼핑몰³⁵⁾에서 나타나고 모든 분야에서 전파되고 있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88) ㄱ.



小_Sally的衣帽间:亲们,由于订单量大发货慢,还请ob们多忍耐下,我会尽快把亲们的宝贝发出去哦,谢谢你们的支持和信任,爱你们🙏🙏🙏

ㄴ.



Mr`轩少★:单身一直都是哥的作风。以后不要问哥为什么没有另一半。真的要找的话 还怕没有一个看不上我。所以 不要再问我同样的问题了。亲们!好好过你们的情侣生活别拖我下水🙄

ㄷ.



舒兰芳2011:哇哇,谢谢亲。我发现好多要打正着呢,比如糖水,牛奶,苹果香蕉,面包,不过不是为失眠,而是睡前饿。。。🙄🙄🙄
//@my_snowman2011:@舒兰芳2011 亲 可以试试~

ㄹ.



深圳天气▼:【天冷,注意保暖】今天天气阴冷,很多朋友关心现在温度到底有多少度了。实际情况是:目前全市气温已普遍降到了15℃上下,东部沿海略高于16℃,随着冷空气的进一步补充今天下午到明天早晨气温还将进一步下降,亲们注意保暖了!

‘親’이 2인칭 대명사로서 (88ㄱ)은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고객에게 말하는 호칭으로 쓰이는 모습이다. 여기서 ‘親’이 단수로 나타나고 있다. (88ㄴ, ㄷ, ㄹ)은 ‘親’이

35) ‘親’이 2인칭 대명사로 쓰이는 문장은 처음에 쇼핑 사이트인 ‘淘宝网’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淘宝体’라고 불리기도 한다. ‘親’을 통하여 가게주가 손님에게 친근감을 보이면서 장사를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 채팅 대화방으로 확대되는 예이다. (88ㄷ)은 기상청이 개설한 마이크로블로그에서 일기예보를 알리는데 ‘親’으로 호칭하는 모습이다. ‘親’이 처음에 쇼핑몰에서 쓰이게 되는 이유는 가게 주인이 고객의 경계심을 풀면서 어설픈 대화를 피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親’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親’이 이미 통신 언어에서만 쓰이는 2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2인칭 대명사로 확대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보이는 ‘親’이 일반 2인칭 대명사 ‘너, 너희들’보다 친근감이 더 느껴질 수 있기에 ‘자기’로 바꿀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親’이 ‘관계가 밀접한, 사이가 좋은’의 뜻에서 ‘당신, 자기’라는 뜻으로 변하고, 중간 범주에 속하는 형용사에서 주범주에 속하는 대명사로 쓰이게 되어 문법화와 달리 역문법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3. 정리

이상 중국어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통신 언어에서 관찰된 사례에 비하여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진행과정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를 표로써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중국어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구분	유형	사례
문법화	형용사>접두사	微
	개사>접두사	被
	명사>접미사	門, 男, 女, 哥, 姐, 叔, 嫂, 帝, 客, 奴, 族
	동사>접미사	控
역문법화	접두사>명사	門

	형용사>대명사	親
--	---------	---

V.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비교

지금까지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일부이긴 하지만 통신 언어가 언어 변화의 보편적 원리를 드러내는 문법화와 역문법화론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두 언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면서 향후 문법화와 역문법화를 수행하게 될 단어들에 대해 전망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앞의 III장과 IV장에서 다룬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사례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한중 통신 언어 문법화와 역문법화 사례

구분	유형	한국어	중국어
문법화	명사>부사	완전, 대박, 진심, 본격, 강력, 짱	-
	명사>접미사	빠, 덕후, 느님, 통령, 짱	門, 男, 女, 哥, 姐, 叔, 嫂, 帝, 客, 奴, 族
	형용사>접두사	-	微
	개사>접두사	-	被
	동사 > 접미사	-	控
역문법화	접두사>부사	개, 왕, 초	-
	접미사>대명사	-님	-

	접미사>명사	-	門
	형용사>대명사	-	親

<표 5>를 토대로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1. 공통점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공통점을 진행 방향, 기원적 구성, 결과 및 의미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화의 경우, 동일한 경로의 변화를 보이는 ‘명사>접미사’ 현상이 한중 통신 언어에서 다 나타났다. 한국어의 경우 명사로 쓰이던 ‘빠, 덕후, 느님, 통령, 짱’ 의존성을 획득하여 접미사처럼 쓰이게 되었으며, 중국어의 경우는 자립 명사 쓰이던 ‘門, 男, 女, 哥, 姐, 叔, 嫂, 帝, 客, 奴, 族’ 등이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접미사처럼 기능하게 된 것이다.

둘째, ‘명사>접미사’와 ‘동사>접미사’, ‘접미사>대명사’와 ‘형용사>대명사’ 등처럼 시작 범주가 다르지만 같은 범주의 결과에 이르는 현상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 통신 언어에서 위에서 제시한 ‘명사>접미사’의 경로 외에 동사로 쓰이던 ‘控’이 ‘어떤 사물에 극히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이는 ‘동사>접미사’ 현상이 있다. 한국어에 있어 ‘-님’이 존경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이는데 통신 언어에서 2인칭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중국어의 경우는 형용사 ‘親’이 역시 ‘자기야’라는 뜻의 2인칭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셋째, 한중 통신 언어에서 나타난 문법화 현상이 역문법화 현상보다 더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어의 경우는 본 논문에서 다룬 문법화 현상이 ‘완전, 대박, 진심, 본격, 강력, 짱, 빠, 덕후, 느님, 통령, 짱’ 등 12 개가 있는데 역문법화 현상은 ‘개

-, 왕-, 초-' 3개만 있다. 중국어의 경우 또한 문법화 현상이 '門, 男, 女, 哥, 姐, 叔, 嫂, 帝, 客, 奴, 族, 微, 控, 被' 등 14 개가 있는데 역문법화 현상에 속하는 예는 '門, 親' 2 개만 있다.

넷째, '명사>접미사'와 '동사>접미사'의 문법화 경로를 걸쳐서 형성된 접미사와 유사한 구성은 주로 사람 범주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어와 같은 경우에 '빠, 짱, 덕후, 느님, 통령' 등은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쓰이고 있으며, 중국어의 경우 '男, 女, 哥, 姐, 叔, 嫂, 帝, 客, 奴, 族' 등은 '특정한 외모, 특징, 기술을 가지는 사람'이란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이고 있다.

다섯째, '빠, 덕후, 느님, 통령, 帝, 控' 등 사람 범주를 나타내는 준접미사 중에 같은 의미를 지니는 어휘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빠, 덕후'는 '어떤 사물을 극히 좋아하는 사람'의 뜻을 나타냄으로써 중국어의 '控'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의 '느님, 통령'은 '어떤 분야에 최고가 될 만한 사람'을 나타냄으로써 중국어의 '帝'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섯째, '덕후, 控'과 같은 일본어에서 온 말이 기원적 구성으로서의 문법화 현상이 한중 통신 언어에서도 다 관찰되었고, 한국어에서 '어떤 사물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준접미사 '덕후'가 'おたく'에서 유래되며, 중국어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控'도 일본어 'コン'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외래어가 공통적으로 일본어에서 유입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곱째, '빠, 느님, 門, 哥, 姐, 帝' 등처럼 사회적인 핫 이슈를 중심으로 언어의 개신형이 생기고 확대되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어의 '빠'와 같은 경우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노빠'라고 하며, '삼성 최신 폰이 출시할 때 좋아해서 삼성 폰으로 바꾸는 사람'을 '삼성빠'라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애플빠'도 쓰이고 있다. 중국어의 '門'은 '불량 사진 노출된 사건'을 가리키는 '艷照門'부터 인터넷에서 올린 부정적 사건에 따라 'X門'류 어휘가 생산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적 이슈들이 통신 언어의 소재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네티즌들이 이런 이슈들의 공통적 특징을 추론하여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5.2. 차이점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차이점을 역시 기원적 구성, 과정, 결과 및 의미 등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화의 기원적 구성에 있어 한국어의 경우는 명사에서만 시작하는데, 중국어의 경우는 형용사, 개사, 동사 등 범주에서 나타났다.

둘째, 한국어의 경우는 ‘명사>부사’와 ‘접두사>부사’ 등 부사로 변하는 문법화 과정이 중국어보다 많다. 예를 들어 명사 ‘완전, 대박, 진심, 짱’과 접두사 ‘개-, 왕-, 초-’ 등이 각각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데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이 단어들은 거의 한자어이다. 한국어는 교착어이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한자어를 비롯한 부사류는 주로 ‘한자어+적으로/히/하게’ 구조로 쓰인다. 한자어가 의미를 나타내는데 부사의 표지인 ‘적으로, 히, 하게’ 등과 결합해서 써야 된다. 인터넷에서 빠른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화자들이 부사 표지를 생략해서 어근만 적어 씀으로써 의미 전달과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한 단어가 형태 변화 없이도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며, 다른 품사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명사가 동사, 형용사, 부사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주범주에 속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셋째, 중국어의 경우는 ‘門’처럼 문법화와 역문법화를 경험하다가 다시 역문법화를 경험하는 현상이 있다. 중국어의 ‘門’은 문법화를 통해서 ‘정치 추문이나 일반 부정적 사건’을 더하는 접미사처럼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실체의 문’을 나타내는 ‘門’과 ‘부정적 사건’을 나타내는 ‘門’과 서로 영향을 끼침으로써 ‘부정적 사건’을 표하는 ‘門’이 점차 어휘적 의미가 강해지고 역문법화를 거쳐서 다시 일반 명사로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통신 화자들이 경제적, 표현적, 창조적 동기로 인해 어떠한 특정 어휘에 새 의미와 용법을 부여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중국어의 경우는 문법화를 경험함으로써 나타난 사람 범주를 가리키는 준 접미사들 가운데 ‘哥, 姐, 叔, 嫂’처럼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한국어보다 많다. 중국어의 ‘哥, 姐, 叔, 嫂’가 원래 혈연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가리키는 호칭인데, 인터넷에서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일반화되었다. 물론 의미가 일반화되지만 그 단어들이 내포하는 가족 지향의 의미와 존대의 의미가 여전히 남아 있다. ‘哥, 姐, 叔, 嫂’가 어떠한 공통적 특징을 가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어휘로서, 그 특징에 따라 긍정적인 면도 있고, 중성적, 부정적인 면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學歷姐’는 16년 동안에 8개 학위를 받은 여자를 가리킴으로써 여기서의 ‘姐’는 이 여자에 대한 존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表叔’은 ‘비싼 시계를 바꾸어 차는 어떤 고급 공무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공무원이 다른 장소에서 각종 비싼 시계를 차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공개되면서 네티즌들로 하여금 심층적 조사를 부정부패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서의 ‘叔’이 부정적, 즉 풍자(諷刺)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언어 표현 면에서 개방적이고 해방된 공간이라서 어떠한 대상에 대한 욕설, 놀리는 말이나 유희하는 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존댓말을 쓰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지만 네티즌들은 이러한 부정적 사회 이슈에 대해서 과하게 비판한 글, 욕설 등으로 평론하기보다는 더 완곡한 표현을 선호한다. 이를 통해서 네티즌들은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서 자유로운 자세로부터 좀 더 이성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자세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외국어가 문법화의 기원적 구성으로서 쓰일 때, 한국어의 ‘덕후’의 경우 주로 음역한 단어의 약어이고, 중국어의 ‘門, 控’의 경우는 음역과 의역을 겸하여 대응할 수 있는 한자로 표기하는 특징이 있다. 한국어의 ‘덕후’는 ‘오타쿠’를 변형해서 줄인 약어인데, 이와 달리 한국어의 ‘門’과 ‘控’은 각각 영어 ‘gate’와 일본어 ‘コン’을 음역과 의역을 한 것이다. 따라서 ‘門’과 ‘控’은 비록 외래어이지만 중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부합되기 때문에 표현력이 강하고 사용 범위가 넓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본래 중국어의 ‘控’과 번역된 ‘控’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래의 ‘控’은 ‘コン’이 ‘지극히 좋아한다’는 의미를 얻어서 동사로 쓰이게 되었다.

5.3. 정리

5장에서는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을 토대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두 나라의 통신 언어에서 나타나는 문법화와 역문법화를 살펴본 결과 그 방향과 과정, 및 결과 등 차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별 언어가 서로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문법화와 역문법화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은 각 언어가 가지는 특징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과 사용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비교

공통점	<p>가. 문법화의 경우, 동일한 경로의 변화를 보이는 ‘명사>접미사’ 현상이 한중 통신 언어에서 다 나타났다.</p> <p>나. ‘명사>접미사’와 ‘동사>접미사’, ‘접미사>대명사’와 ‘형용사>대명사’ 등처럼 시작 범주가 다르지만 같은 범주의 결과에 이르는 현상이 있다.</p> <p>다. 한중 통신 언어에서 나타난 문법화 현상이 역문법화 현상보다 더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p> <p>나. 문법화의 경우에는 ‘명사>접미사’와 ‘동사>접미사’의 경로를 걸쳐서 형성된 접미사와 유사한 구성은 주로 사람 범주를 나타내는 것이다.</p> <p>라. ‘빠, 덕후, 느님, 통령, 帝, 控’ 등 사람 범주를 나타내는 준접미사 중에 같은 의미를 지니는 어휘를 찾을 수 있다.</p> <p>마. ‘덕후, 控’과 같은 일본어에서 온 말이 기원적 구성으로서의 문법화 현상이 한중 통신 언어에서도 다 관찰되었고.</p>
-----	---

	<p>바. ‘빠, 느님, 門, 哥, 姐, 帝’ 등처럼사회적인 핫 이슈를 중심으로 언어의 개신형이 생기고 확대되는 공통점이 있다.</p>
<p>차이점</p>	<p>가. 문법화의 기원적 구성에 있어 한국어의 경우는 명사에서만 시작하는데, 중국어의 경우는 형용사, 개사, 동사 등 범주에서 나타났다.</p> <p>나. 한국어의 경우는 ‘명사>부사’와 ‘접두사>부사’ 등 부사로 변하는 문법화 과정이 중국어보다 많다.</p> <p>다. 중국어의 경우는 ‘門’처럼 문법화와 문법화를 경험하다가 다시 역문법화를 경험하는 현상이 있다.</p> <p>라. 중국어의 경우는 문법화를 경험함으로써 나타난 사람 범주를 가리키는 준접미사들 가운데 ‘哥, 姐, 叔, 嫂’처럼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한국어보다 많다.</p> <p>마. 외국어가 문법화의 기원적 구성으로서 쓰일 때, 한국어의 ‘덕후, 빠’의 경우 주로 음역한 단어의 약어이고, 중국어의 ‘門, 控’의 경우는 음역과 의역을 겸하여 대응할 수 있는 한자로 표기하는 특징이 있다.</p>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중 통신언어 가운데 문법화와 역문법화라는 보편적 언어변화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예들을 비교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찰·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언어로서의 한국어와 중국어 통신언어가 서로 다른 특징이 있지만 보편적 언어변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얻은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 장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중 두 나라에서 이루어진 통신 언어에 대한 연구가 통신 언어의 양상에만 집중하고 있고 연구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통신 언어를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관점에서 다른 연구는 중국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 강희숙(2012)가 유일한 것으로 들 수 있기 때문에 한중 통신 언어를 문법화와 역문법화론의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얻었다.

둘째, II 장에서는 우선 스마트폰 등 최첨단 통신 기구 및 무선 인터넷(WIFI)로 구성된 새로운 인터넷 환경 안에서 통신 언어라는 개념이 컴퓨터 통신 언어보다 인터넷 통신 언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적당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어서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기제를 은유(metaphor), 유추(analogy), 재분석(reanalysis), 일반화(generalization), 흡수(absorption)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통신 언어의 동기를 경제적 동기, 표현적 동기, 오락적 동기, 유대 강화 동기, 심리적 해방 동기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통신 언어의 변화 과정에 문법화의 기제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경로를 정의하였다. 그 경로는 다음과 같다.

문법화의 경로: 주범주(명사, 동사) > 중간 범주(형용사, 부사) > 소범주(전치사, 접사, 접속사, 관사, 조동사) > 접어 > 굴절 접사

역문법화의 경로: 굴절 접사 > 접어 > 소범주(접사, 접속사, 관사, 조동사) > 중간

범주(형용사, 부사) > 주범주(명사, 동사)

셋째, III장과 IV장에서는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의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본 후, V장에서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통점>

- 가. 문법화의 경우, 동일한 경로의 변화를 보이는 ‘명사>접미사’ 현상이 한중 통신 언어에서 다 나타났다.
- 나. ‘명사>접미사’와 ‘동사>접미사’, ‘접미사>대명사’와 ‘형용사>대명사’ 등처럼 시작 범주는 다르지만 같은 범주의 결과에 이르는 현상이 있다.
- 다. 한중 통신 언어 모두 문법화 현상이 역문법화 현상보다 더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 라. 문법화의 경우 ‘명사>접미사’와 ‘동사>접미사’의 경로를 걸쳐서 형성된 접미사와 유사한 구성은 주로 사람 범주를 나타내는 것이다.
- 마. ‘빠, 덕후, 느님, 통령, 帝, 控’ 등 사람 범주를 나타내는 준접미사 중에 같은 의미를 지니는 어휘를 찾을 수 있다.
- 바. ‘덕후, 控’과 같이 일본어에서 온 말이 기원적 구성으로서의 문법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 사. ‘빠, 느님, 門, 哥, 姐, 帝’ 등처럼 사회적인 핫 이슈를 중심으로 언어의 개신형이 생기고 확대되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

- 가. 문법화의 기원적 구성에 있어 한국어의 경우는 명사에서만 시작하는데, 중국어의 경우는 형용사, 개사, 동사 등 범주에서 나타났다.
- 나. 한국어의 경우는 ‘명사>부사’와 ‘접두사>부사’ 등 부사로 변하는 문법화 과정이 중국어보다 많다.

다. 중국어의 경우는 ‘門’처럼 문법화 뒤에 다시 역문법화를 경험하는 현상이 있다.

라. 중국어의 경우는 문법화를 경험함으로써 나타난 사람 범주를 가리키는 준접미사들 가운데 ‘哥, 姐, 叔, 嫂’처럼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한국어보다 많다.

마. 외국어가 문법화의 기원적 구성으로서 쓰일 때, 한국어의 ‘덕후’의 경우 주로 음역한 단어의 약어이고, 중국어의 ‘門, 控’의 경우는 음역과 의역을 겸하여 대응할 수 있는 한자로 표기하는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를 통하여 확인된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사례를 통하여 통신 언어의 어휘의 생성, 전파, 정착 등의 방향과 형식에 대해 전망할 수 있다.

박동근(2012:67-68)에서는 통신 언어 사용 양상의 변천은 형태 변형 단계, 형태 해체 단계, 의미 해석, 의미 재분석 등 네 단계의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최근까지 인터넷상에서 어휘의 기존 의미를 유지하되,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거나, 범주화하거나 강조·과장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본 연구에서 다룬 현상과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신 언어 사용자들이 통신 언어의 형식보다 더 많고 창조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통령, 덕후, 느님, 帝, 奴, 控, 哥, 姐’ 등과 같은 새롭게 사람을 범주화하거나 가치 판단을 함의하는 어휘들이 대량으로 생성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접사를 A로 표시하고 접사와 결합하는 어근을 X로 표시하면 이러한 준접미사로 구성된 구조는 ‘X+A’로 표시할 수 있다. A는 어떤 현상, 행동, 핫이슈의 주체의 특징에 대한 추론이고 X는 ‘X+A’ 구조를 재분석함으로써 채우는 내용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향후에 이와 같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준접미사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국어 통신 언어의 경우는 ‘한자어 어근+ 히/적으로 등으로 구성된 부사류 단어들’이 접미사 ‘히, 적’ 등을 제거하여 한자어 어근만 쓰임으로써 용언을 수식하는 부

사로 쓰이는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한자어 명사가 부사로 쓰이는 것은 한자어가 가지는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뿐더러, 네티즌들이 빠른 의사소통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존 어휘부의 양을 늘리지 않은 채 표현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래어의 문법화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인데 한국어와 중국어에 있어 외래어를 차용하는 방식이 달라서 새 어휘의 특징이 다르다. 한국어의 경우는 여전히 외국어를 음역하여 외래어를 만드는데 중국어의 경우는 외국어를 음역과 의역을 겸하는 방식으로써 의미와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사용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공시적 관점에서 보면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를 촉진할 수 있다. 통신 언어 사용자들이 경제적 동기, 표기적 동기 등으로 말미암아 일상어와 다른 개신형을 만들어서 문법화나 역문법화의 1단계의 소재를 제공한다. 통신 언어를 사회 방언으로 보면, 이 방언이 쓰이는 환경인 인터넷은 일반 지역 방언의 환경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은 지리 지형의 한계, 계급의 구분 등을 벗어나고 언어의 전파하는 데에 점차적으로 파동적이라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확대가 가능할 수 있다. 인터넷망에서 빠른 소통과 전파로 인해 개신형의 재분석, 모방, 유추 등 과정을 가속시킴으로써 통신 언어의 일반화에 기여하였다.

본 논문은 한중 통신 언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향후 출현할 통신 언어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해서 예측하였지만, 주로 어휘적 측면에서 연구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통신 언어의 형태적인 구성을 대상으로 문법화와 역문법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미연(2010), 「中韓網絡語言的對比研究」,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숙(2010), 『국어 정서법의 이해』, 서울: 역락.
- 강희숙(2012), 「통신언어에 나타난 역문법화 현상 고찰」, 『한민족어문학』 61, 한민족어문학회, pp.61~87.
- 고영근(1974), 『국어접미사의 연구』, 서울: 광문사.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서울: 집문당.
- 김기란·최기호(2009), 『대중문화사전』, 서울: 현실문화.
- 김선호(2011), 『한국어 관형어 연구』, 서울: 역락.
- 김인순(2010), 「‘被’의 문법화 연구」, 『中國學論叢』 29.
- 나수경(2011), 「품사통용의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 개신언어문학회, pp.105~127.
- 노명희(2003), 「구에 결합하는 접미한자어의 의미와 기능」,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 의미학회, pp.69~95.
- 노명희(2007), 「한자어의 어휘 범주와 내적 구조」, 『진단학보』 103, 진단학회, pp.167~191.
- 박동근(2001), 「통신 언어의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기능 연구」, 『어문학 연구』 11,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pp.380~417.
- 박동근(2012), 「컴퓨터 통신 언어의 사람 범주 표현 어휘의 생성과 사회적 가치 인식-[X-남], [X-녀] 과생어를 중심으로」, 『전자매체와 의사소통』 2012-4, 담화인지언어학회, pp.65~84.
- 백낙천(2009), 「국어의 문법화 현상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화』 39, 한국언어문화학회, pp.241~257.
- 백경녀(2001), 「청소년의 언어사용 실태와 방안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기중(1992), 「현대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 1, pp.1~85.

- 송성경(2009), 「중국 인터넷 통신 언어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총(2011), 「한중 신조어의 형태론적·어휘론적 대비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소진(2005), 「‘한자어의 경음화’에 대한 재론」, 『국어학』 45, pp.69~93.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 안주호(2001), 「한국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 『담화와 인지』 8-2, 담화인지언어학회, pp.93~112.
- 안주호(2002), 「한국어에서의 역문법화 현상에 대하여」, 『언어학』 10, 대한언어학회, pp.23~40.
- 양호연(2012), 「한·중 인터넷 통신 언어에 대한 음운론적 대조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하(1996다), 역 S. Rhee 1996c.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이영아(2006), 「중국 인터넷 통신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민(1994), 「PC통신이 청소년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보고서』 7, 서울YWCA, pp.4~14.
- 이정복(1993), 「경어법 요소의 기능 부담량과 쓰임에 대하여」, 『해양문학과 국어국문학-양전 이용옥 교수 환려키념 논총』, 형설출판사.
- 이정복(1997가), 「방송언어의 가리킴 말에 나타난 ‘힘’과 ‘거리」, 『사회언어학』 5-2, 한국사회언어학회, pp.87~124.
- 이정복(1997나),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및 약어 사용 실태와 순화 방안」, 『외래어 사용 실태와 국민 언어 순화 방안』, 국어학회, pp.121~154.
- 이정복(2000가), 「컴퓨터 통신 속의 지역 방언」, 『우리 말글과 문학의 새로운 지평』, 역락, pp.87~118.
- 이정복(2000나), 「통신언어로서의 호칭어 ‘님’에 대한 분석」, 『사회언어학』 8-2, 한국사회언어학회, pp.193~221.

- 이정복(2002가), 『국어 경어법과 사회언어학』, 월인.
- 이정복(2002나), 「전자편지 텍스트 구조와 기능」, 『텍스트언어학』 12,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93~118.
- 이정복(2003), 『인터넷 통신 언어의 이해』, 월인.
- 이정복·양명희·박호관(2006), 『인터넷 통신언어와 청소년 언어문화』, 한국문화사.
- 이정복(2009), 『인터넷 통신언어의 확산과 한국어 연구의 확대』, 서울: 소통.
- 이정복(2011라), 「인터넷 통신 언어 실태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 『배달말』 49, 배달말학회, pp.29~69.
- 임규홍(2000), 「컴퓨터 통신 언어에 대하여」, 『배달말』 27, 배달말학회, pp.23~59.
- 임홍빈(1981),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 pp.1~35.
- 전은진 외5인(2011), 「문자언어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 실태 연구」,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학회, pp.371~333.
- 조상진(2006), 「인터넷 통신 언어의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일규(2002), 「컴퓨터 통신에서의 청소년 대화에 나타난 언어사용 실태 조사」,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최미숙(2008), 「중국 인터넷신조어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신혜(2012), 「현대중국어 소유·존재동사 ‘有’의 문법화 연구-‘有點’, ‘(很) [有 N]’, ‘有-NP-VP’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지(2008), 「자립명사로 발달하는 한자어 파생접미사에 대하여」, 『형태론』 10-2, 도서출판: 박이정, pp.319~333.
- 판디(2010), 「중·한 인터넷 통신 언어의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명숙(2008), 「諧音에 나타난 中國文化 考察」,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ONG DAPING(2009), 「한·중 인터넷 통신 언어 문화의 비교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曹爽(2012), 「語法化理論与近年漢語語法化研究進展」, 『江西社會科學』 2012-6, pp.219~223.
- 曹春靜(2011), 「網絡用語“控”的流行及其修辭解釋」, 『當代修辭學』 65, pp.74~81.
- 陳治國(2007), 「中韓網絡語言的特征及其對應關係的分析」, 北京中央大學碩士論文.
- 崔秘席(2005), 「中韓網絡聊天語言比較」,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 崔秘席(2008), 「中韓網絡聊天語言比較研究」, 山東大學博士學位論文.
- 何洪峰·彭吉軍(2009), 「論2009年度熱詞“被X”」, 『語言文字應用』 2010-3, pp.81~88.
- 何麗(2009), 「“X客”詞族的多角度分析」, 『新余高專學報』 15-1, pp.59~61.
- 胡燦明(2012), 「網絡“X客”族詞探微」, 『群文天地』 2012-6, p.51.
- 胡麗珍(2008), 「再論三个程度副詞“巨”、“狂”、“奇”」, 『修辭學習』 147, pp.79~80.
- 雷蕾(2010), 「淺析現代漢語中類詞綴与詞綴的區別」, 『文學界』 11, pp.88~90.
- 練欣(2012), 「2003-2011年度白色市網絡語言使用情況調查」, 『傳承(學術理論版)』, pp.76~77.
- 劉秀榮(2011), 「透過“門”看“哥”、“姐”—從社會語言學視角看新詞」, 『安徽文學』 3, pp.225~226.
- 劉欽明(2002), 「“網絡詞匯”的組合理据分析」, 『語言教學与研究』 2002-6.
- 李艷(2010), 「“X奴”的詞匯化和語法化」, 『文學教育』 2010-9, p.150.
- 李健雪(2005), 「論作為語法化反例的詞匯化」, 『广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1, pp. 86~90.
- 陸欣(2006), 「中韓網絡語言的差異比較」, 『科技文化』 5, pp.52~54.
- 盧惠惠(2003), 「小議網絡語言的語音變異現象」, 『修辭學習』 2003-1.
- 呂叔湘(1978), 『漢語語法分析問題』, 北京商務印書館.
- 彭咏梅·甘于恩(2010), 「“被V双”:一种新興的被動格式」, 『中國語文』 2010-1, pp.57~58.
- 秦秀白(2003), 「網語和網話」, 『外語電化教學』 94, pp.1~6.
- 尚偉(2011), 「漢語外來詞的類化与泛化」,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 5』, pp.72~75.
- 田聰(2012), 「青少年網絡語言使用現狀調查与研究--以保定市部分中小學生爲例」, 河北大學碩士論文.
- 涂海強·楊文全(2011), 「媒体語言“X+哥”類詞語的衍生机制与語義關聯框架」, 『語言教學与研究』6, pp.24~30.
- 万琴(2011), 「淺析現代漢語類詞綴的特点」, 『九江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pp.76~78.
- 王洁(2011), 「網絡語言之語法變异現象」, 『北京化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4, pp.60~64.
- 王寅(2005), 「狹義与广義語法化研究」, 『四川外語學院學報』21, pp.68~73.
- 吳福祥(2003), 「關於語法化的單向性問題」, 『當代語言學』5, pp.307~322.
- 吳福祥(2004), 「近年來語法化研究的進展」, 『外語教學与研究(外國語文双月刊)』36, pp.18~24.
- 吳福祥(2005), 「漢語語法化研究的當前課題」, 『語言科學』4, pp.20~32.
- 王麗坤(2009), 「‘門’族網絡新詞及其折射出的社會文化心理」,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 pp.74-79.
- 于根元(2001), 『網絡語言概說』, 北京:中國經濟出版社.
- 楊成虎·么孝穎(2007), 「詞匯化中的虛詞問題」, 『西安郵電學院學報』6, pp.164~167.
- 尹睿·王莹(2012), 「論現代漢語新興結構“X帝”」, 『大連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33, pp.134~136.
- 張佳(2012), 「從“微X”淺析“微”的類詞綴化現象」, 『文學界』2011-2, pp.67~68.
- 張強(2010), 「兩類‘門’和‘門’的逆語法化」, 『漢字文化』98, pp.39~42.
- 趙雪·陳青海(2011), 「網絡傳播語境下“被”字的前綴化」, 『現代傳播』176, pp.76~78, 125.
- 張小會(2012), 「網絡新語“x+的說”探析」, 『語言文字』, pp.111~112.
- 張云輝(2007), 「網絡語言的詞匯語法特征」, 『中國語文』6, pp.531~535.

- 鄭遠漢(2002), 「關於“網絡語言”」, 『華中科技科學學報』 2002-3, pp.102~106.
- 宗守云(2012), 「類后綴“一族”及其逆向語法化」, 『百色學院學報』 25, pp.88~91.
- Bybee, Joan L, & William Pagliuca. 1985. Cross linguistic comparison and the development of grammatical meaning. In Fisiak. 1985. 59-83.
- Bybee, Joan L, & William Pagliuca. 1987. The evolution of future meaning. In Ramat *et al.* 1987. 59-83.
- Bybee, Joan L, William Pagliuca, & Revere D. Perkins. 1991. Back to the future. In Traugott & Heine 1991a. vol.2:17-58
- Bybee, Joan L, William Pagliuca, & Revere D. Perkins.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ine B. Urike C. & Friederike, H.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pper, Paul J. & Elizabeth Closs Traugott. 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uryłowicz, Jerzy. 1975 [1965].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In Coseriu. 1975. *Esquisses Linguistiques II.* Munich: Fink. 38-54.
- Langacker, Ronald W. 1977. Syntactic reanalysis. In Li 1977. 57-139.
- Langacker, Ronald W. 1990. Subjectification. *Cognitive Linguistics* 1:5-38
- Lord, Carol. 1973. Serial verbs in transition.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4.3:269-296.
- Lord, Carol. 1976. Evidence for syntactic reanalysis: From verb to complementizer in Kwa. In Steever et al. 1976. 179-191.
- Lyons, John.1977. *Semantics.* 2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hee, Seongha. 1996c. *Semantics of Verbs and Grammaticalization: The Development in Korean from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eoul: Hankuk Publisher.

Traugott, Elizabeth Closs. 1980. Meaning-change in the development of grammatical markers. *Language Science* 2:44-61.

보고서

CNNIC(2012), 第30次中國互聯網絡發展狀況統計報告(제30차 중국 인터넷 발전 상황 통계 보고서), 中國互聯網絡中心(중국 인터넷 데이터 센터).